

2020년 겨울호 vol.161

2020 이화를 응원합니다
2020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
제17대 모교 총장 선거 스케치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4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베풀어야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3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1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3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1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4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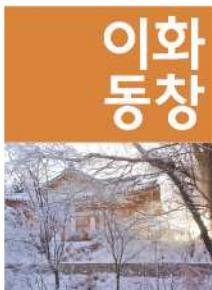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표지 사진
황규호(도교 교육학과 교수)
아령당의 새 아침(2012년)

편집위원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조성아(정의 89,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발행 2021년 1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1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감사 기도
- 03 2020 이화가족 성탄예배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나침반이 되어 주신 하나님
- 05 '2020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
모교발전기금 1억 원 전달과 이화 응원 영상 촬영
- 08 2020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 / 북텍사스 댸러스
사상 처음 영상 총회로 진행한 북미주 이화인들의 축제
- 11 이화발레양상을 공연 / 옴니버스 발레 <항해(Voyage)>
인생의 항해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
- 12 이화의 기도처 순례 / ECC 기도실
빛과 나무 향기가 조화로운 고요의 공간
- 14 축하합니다
이배용 동창 외
- 17 제17대 모교 총장 선거 스케치
제17대 모교 총장에 국제학과 김은미 교수 선임
- 21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인터뷰
입양과 아동복지 위해 헌신한 심현숙 동창
- 26 이화비즈
그룹세브코리아 대표이사 팽경인 동창
- 31 총동창회 소식
총장 선거 등 화상 회의로 논의 외
- 34 선교부 소식
동창 선교사들의 편지와 기도를 모아서 이화역사관에 전달
- 35 모교 소식
사범대학,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연속 A등급 획득 외
- 38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성산업 회장 수석비서(이사) 전성희 동창
- 42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경찰청 첫 여성안전기획관 조주은 동창
- 46 선교지에서 온 편지
생명의 위기에 찾아온 주님의 말씀
- 48 대학(원) 소식 조형예술대학 외
- 52 과(학)부 소식 불어불문학과 외
- 54 지회 소식 뉴욕 지회 외
- 61 동창 근황 정효정 동창 외
- 69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 69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 71 연회비 납부자 명단



03



05



08



11



12



2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사랑하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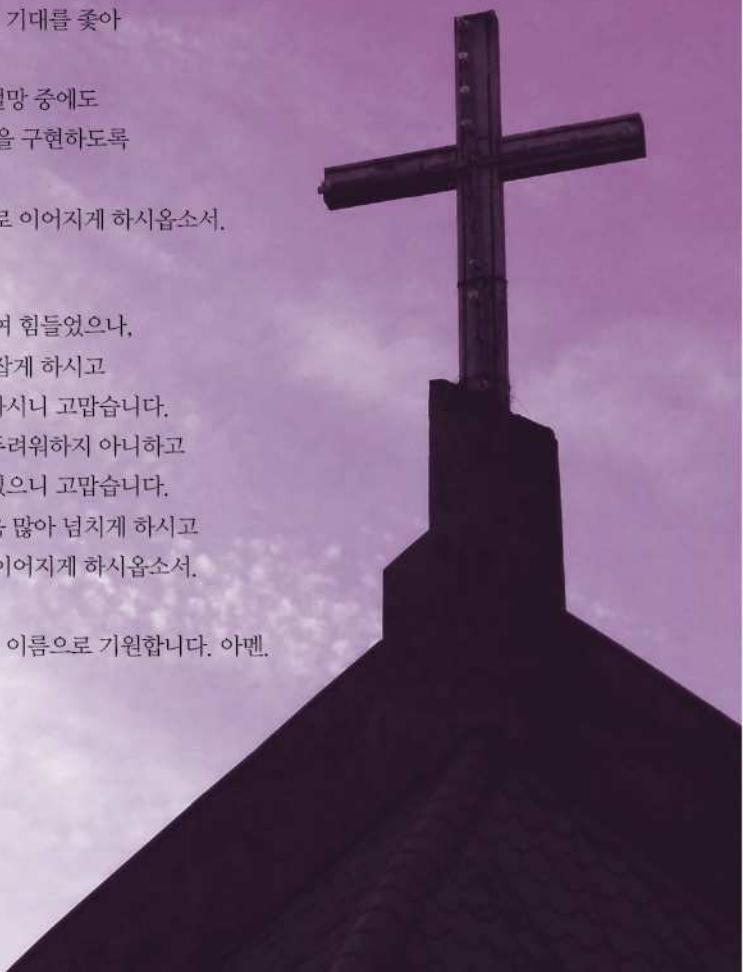
2020년의 첫 자락에서 한 해를 당신께 의뢰하며 간구함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서 2021년을 마주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당신의 시선 죽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설렘으로 기다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우리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은 곳 말구유에 오신
당신의 의아들 예수로 인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비우심의 역동이 우리 삶의 생명 되어 나눔과 돌봄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사심으로 인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당신의 삶 본받게 하시고 당신의 기대를 죽어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 옮겨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절망 중에도
맡기신 시대적 부르심의 소명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도록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부어 주심의 역동이 우리 삶의 생명 되어 섬김과 도움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마치 우겨 삶 당한 듯하여 지치고 깊은 용덩이에 빠진 듯하여 힘들었으나,
이 한 해를 관 씌우시고 축복하시며 당신의 손 내밀어 마주잡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 죽어 다시금 일어나 당신의 이름을 읊조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드신 당신의 얼굴로 인해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뢰함으로 젖펜 야기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 덮음같이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그 품으심의 역동이 우리 삶의 생명 되어 살림과 세움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020 이화가족 성탄예배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나침반이 되어 주신 하나님

2020년 12월 3일(목) 오후 3시 모교 교목실과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이화가족 성탄예배(이하 성탄예배)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개최되었다. 2020 성탄예배는 모교 대강당에서 영상을 사전 녹화했다.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창들과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동창 선교사들이 동참하여, 코로나19의 우울함 속에 이화를 설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예배가 되었다.

성탄예배는 장윤재 교목실장의 예배의 부름에 이어 남성교수중창단의 <소나무> 중창으로 시작하였다. 이어 구해인(교대원 음악교육 석사과정 재학 중) 이화기독학생연합 대표와 김선정(영문 88) 케냐 선교사가 교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화가 드리는 기도를 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마태

복음 2:1-2,9-11을 봉독한 후 장윤재 교목실장이 <그의 별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장 교목실장은 코로나19로 길을 잃은 이때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간은 항해 중에 그 한계를 깨닫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 며칠 만에 무너진 인간은 길을 잊고 당황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재난을 뜻하는 ‘Disaster’는 dis와 astro가 합쳐진 말로, ‘별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별빛을 잊은 것이 재난입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기 얼굴에서 동방박사들은 아름답고 신비한 빛을 보았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나침반이 거기 있음을 보고 엎드려 절하며 황금과 몰약과 유향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김혜숙 모교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화발레앙상블의 발레 공연





1. 장운재 교목실장의 축도 2. 이화가 드리는 기도 장면 3. 남성교수중창단의 캐롤 메들리 4.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동창 선교사들의 모습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흥흉한 바다를 지나 소망의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탄은 인생 항해의 나침반이 되어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설교에 이어 이화발레앙상블(총감독: 신은경 무용과 교수)의 옴니버스 발레 〈항해〉 공연이 있었다. 발레는 헨델의 《메시아》 중 45번 〈내 주는 살아계시고〉와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소서〉)과 반잘레스의 〈March with Me〉 등 세 곡을 배경음악으로 하였다. 발레의 주제는 인생 항해에서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이끄는 대로 힘찬 소망 가운데 사명의 길로 항해를 떠나며 소망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어 등장한 김혜숙 총장은 “성탄은 죽음과 고통을 통한 희망입니다. 힘든 코로나19 중에 성탄이 희망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으로 이화 동창 선교사를 위한 현금 순서가 있었다. 코로나19 중에 선교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창 선교사들과 박에스더(김점동)의 뒤를 이은 이화 의료 선교사들의 동영상 소개에 이어 이 현금이 이화가 보내는 하나님의 성탄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가 있었다.

축가로 박신화 교수가 지휘하는 음대 합창단의 〈나이지리아 캐롤〉(2018년 성탄 예배 장면)과 남성 교수중창단의 캐롤 메들리가 이어지자 사회자는 각자 예배 처소에서 함께 따라 부르자고 권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화 성탄의 집’ 소개가 있었다. 매년 성탄예배 후 점등되었던 ‘이화 성탄의 집’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을 상징하는 불빛으로, 코로나19로 불안한 이 시국에 구원의 불빛과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는 이화의 소원을 담았다. 성탄을 맞아 EOC 계단 위와 아래 그리고 공대 앞 세 곳에 한 달 간 설치된다. 이날 모은 현금은 138명 동창 선교사들을 위한 성탄 선물로 사용되었다. 총동창회 선교부는 김, 이화 동창 수첩, 이화 달력을 소정의 현금과 함께 138명 동창 선교사에게 보냈다.

글·이명숙(의직 75) 동창



이화 성탄의 집(왼쪽)
동창 선교사들에게 보낸 선물(오른쪽)



모교발전기금 1억 원 전달과 이화 응원 영상 촬영



총동창회는 2020년 1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총동창회 임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를 열고, 모교발
전기금 1억 원을 모교 김혜숙 총장에게 전달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매년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1,200여 명 이화 동창들이 모여 화합과 소통의 큰 잔치를 벌이는
'이화인의 밤' 행사를 열지 못한 대신, 모교발전기금은 예년처럼 전
달하기로 한 총동창회는 각 과 및 대학(원) 동창회에 후원 티켓과
함께 정성 어린 선물을 보내며 이를 적극 홍보한 결과 모교발전기
금 1억 원을 모아 모교에 전달하게 되었다. 총동창회는 지난 봄 모
교 대외협력처의 '코로나19 극복 긴급 모금'에도 적극 동참하여 1억
원 가까운 기금액을 모아 모교에 전달한 바 있다.

총동창회에서는 후원에 동참한 이화 동창들에게 감사 카드와 함
께 소정의 선물(이화 동창 수첩, 브로치, 베이커리 쿠폰 1만 원권)





'이화를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이화 동창' '주님 안에서 평화를' 등
이화 동창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한 총동창회 임원들

을 동봉하였는데 이 중 총동창회에서 한정판으로 직접 제작한 브로치는 동창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브로치는 이화의 배꽃을 모티프로 만든 '오월의 멜로디'라는 작품으로, 합성 진주에 큐빅을 장식해 우아함과 실용성이 돋보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올해 총동창회의 많은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되었는데 ‘이화인의 밤’ 행사까지 온라인 이화 후원 행사로 이름을 바꿔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어려울 때마다 모교에 큰 힘을 보태 주는 이화 동창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총동창회도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화 동창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태고 새 시대의 변화에 동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교발전기금을 전달받은 김혜숙 모교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화 동창들이 모교에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모교는 비대면 교육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후원에 동침한 이화 동창들에게
보낸 감사카드와 선물





이어 총동창회 임원들은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3~4명씩 나누어 이화 동창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촬영하였다. ‘축복’, ‘사랑’, ‘주님의 은혜’ 등 각종 키워드를 통해 각자의 방법으로 이화 동창들에게 위로와 안부의 메시지를 전한 임원들은, 이화 동창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2021년에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혜숙 모교 총장과 이경숙·김영주 총동창회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명경·조미숙 총동창회 부회장, 임진·신경희 감사, 각 대학 회장 및 부장 등 총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임원들의 크리스마스와 새해 축하 인사 등을 덧붙여 총동창회 공식 채널에 올리고 이화 동창들과 공유하였다. 이 행사는 방역 지침이 상향되기 전에 체온 측정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열렸으며, 총동창회 공식 채널(https://youtu.be/oJaouJNm_n4)에서 볼 수 있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남상택 총동창회장이 김혜숙 모교 총장에게
모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사상 처음 영상 총회로 진행한 북미주 이화인들의 축제



매인 이벤트로 준비한 가상 합창. 북미주지회연합회 합창단이 수차례의 온라인 연습 끝에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준 합창 영상을 모았다

2020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020년 11월 5일(목)부터 11월 8일(일)까지 북텍사스 댸러스에서 개최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총회는 북미주(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화 동창들의 가장 큰 연례행사로서 약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북미주에 산재해 있는 이화 동창들이 북미주의 총회가 열릴 때마다 각 지회를 순회하며 한자리에 모여 반가운 만남을 나누는 귀한 행사이다. 총회를 통하여 각 지회 간 연대를 도모하고 로컬 소식도 전하며, 모교 총장과 총동창회장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모교 소식도 듣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한 모교를 후원하는 이화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이화 사랑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영상 총회 준비하며 더 많은 소통과 연습에 몰두

2020년 5월, 북텍사스 지회는 코로나19으로 인

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총회의 순연과 새로운 방식의 영상 총회 개최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많은 협의와 고민 끝에 영상 총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50년간 이어온 북미주 이화 동창의 전통을 새로운 포맷의 비대면 영상 총회 개최라는 방식의 전환은, 북미주 이화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다.

개최지인 북텍사스(댈러스) 지회 임원들은 2020년 총회는 일정 변경 없이 영상 총회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북미주 동창들에게 즉시 통보하였고, 줌(Zoom)과 유튜브(Youtube)를 통한 비대면 영상 총회에 대한 실행 계획을 새롭게 준비하여야 했다. 지회장 미팅, 정기이사회, 그리고 정기총회는 실시간 줌 미팅으로 진행하고,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만찬(Banquet) 행사는 녹화 영상으로 준비하여 가상 만찬(Virtual Banquet)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령의 대선배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영상

총회가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잘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50년 전통을 반드시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북텍사스 지회 임원진들은 한마음으로 영상 총회 준비를 다시 시작하였다. 물리적, 환경적인 제한이 없는 Virtual & Online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북미주 각처에 있는 동창과 ‘함께 만들어가는 총회’를 위해 메인 이벤트로 교가 제창과 이화 합창을 가상 합창(Virtual Choir)으로 진행할 것을 기획하였다.

이화의 역사와 한국여성사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온전히 가사 속에 남아 있는 자랑스러운 이화 교가를 3절까지 다 함께 부름으로써 다시금 이화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또한 지금의 힘든 환경 속에서 이화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자는 이화인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북미주지회연합회 합창단의 합창곡을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로 결정하였다. 어려운 합창곡의 선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참여한 대선배들의 열정과 완주를 보면서 편집하는 내내 박수와 존경을 보낼 뿐이었다.

낯선 IT 환경에서 지회장들과 각 지회 동창들과 함께 많은 소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줌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진행 연습을 해야만 하였다. 특히 익숙지 않은 대용량 파일 전송을 위한 클라우드 사용과 교가와 합창 연습을 위한 많은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수차례의 온라인 연습을 진행하여야만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다

11월 5일(목) 지회장 미팅을 시작으로 2020년 영상 총회는 설렘과 함께 서막이 올랐다. 서울에 있는 총동창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북미주 지회장들



영상으로 김사 인사를 전한 남상택 총동창회회장

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지회장 미팅은 3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한국과 북미주 임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향후 연 2회 정도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어 정기이사회가 진행되었는데 약 80여 명의 북미주 이사 대부분이 참석하였으며, 차분하고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었다. 대선배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통해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들의 넘치는 이화 사랑을 다시금 실감하였다.

다음 날 11월 6일(금)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정기 총회는 16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컨퍼런스였다. 대규모 미팅은 경험이 전무하여 혹시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순서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많은 걱정과 염려는 기우였고 ‘역시 우리는 이화’였다.

정기총회 종료 후 가상 만찬(Virtual Banquet)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었다. Virtual Banquet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는 김혜숙 총장을 비롯한 85명의 가상 합창(Virtual Choir)으로 교가 제창이 있었으며, 총동창회장과 이화국제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영상으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전통과 최첨단의 상반된 요소의 조화를 지향하고 앞으로의



한국의 총동창회 임원들(왼쪽)과 북미주지회 회원들(오른쪽)이 교가 제창을 하는 영상

이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김혜숙 총장의 연설이 이어졌다. 또한 이화국제재단의 2020년 장학금 전달식과 2021년 개최지인 디트로이트로 북미주지회연합회 기가 인계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전달되었다. 1부의 마지막 순서인 북미주지회연합회 합창단의 〈Heal the World〉는 67명의 동창들이 참가한 Virtual Choir로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Banquet 2부의 텔런트쇼에서는 9개 지회, 11개 작품이 선보였다. 재미있고, 열심히 준비한 각 지회의 우수 작품들이라 시청하는 모든 동창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대상은 심사위원 29표 중 18표를 얻은 토론토 지회의 〈Sound of Life〉가 선정되었다. 인기상은 유튜브에 게시된 텔런트쇼 영상들의 3일간의 좋아요(Likes) 클릭 수로 결정했으며, 북

가주 지회의 〈여행을 떠나요〉가 405 Likes, 3,291 Views를 기록하면서 인기상을 차지하였다. 동영상으로 제작한 텔런트쇼의 경연 방법은 많은 동창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었고, 우수하고 창의적인 기획력을 볼 수 있는 좋은 시도였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익숙지 않은 IT 환경에도 영상 총회에 관심과 참여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쁜 가운데 함께 동참해 준 모교와 총동창회 관계자들, 이화국제재단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영상 총회의 영상들은 북미주지회연합회 공식 홈페이지(www.ewhana.org)의 갤러리와 유튜브 공식 채널(ewhanaorg)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글·신동진(섬예 85,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대상을 받은 토론토 지회의 〈Sound of Life〉



인기상을 받은 북가주 지회의 〈여행을 떠나요〉



인생의 항해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



2020년 10월 14일(수) 오후 8시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이화발레앙상블(총감독: 신은경 이대 무용과 교수)의 옴니버스 발레 〈항해〉 공연이 있었다.

매년 대강당에서 올리던 이화발레앙상블의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를 올해는 만날 수 없는 아쉬움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총동창회 선교부원들은 코로나19로 급히 귀국한 몇몇 이화 동창 선교사들과 함께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진 객석 곳곳에 흩어져 앉아 〈항해〉 공연을 위해 기도하며 공연에 집중하였다.

인생의 항해에서 나침반이 그 방향을 이끌어 가듯 신은경 교수의 안무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 이는 바로 이화의 정체성인 것이다. 발레 〈항해〉는 문장부호 네 개 즉, 느낌표(!), 쉼표(,), 물음표(?), 마침표(.)로 구성되었다.

1장 느낌표(! 호기심) 창조, 시험, 탐욕

2장 쉼표(, 정거장) 방탕, 광야, 고독

3장 물음표(?) 나는 누구인가? 절망, 화심, 만남

4장 마침표(. 부르심) 고백, 사랑, 소명

피소드를 통해 군무와 독무의 조합으로 서사적으로 묘사했다. 인생의 다양한 항해의 과정을 그리며 나를 찾아가는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장 마침표에서 마침내 나침반 되신 구속하신 주님께 대한 신양고백의 독무(배경 음악: 헨델의 《메시아》 45번)에 이어 소명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의 군무로 소망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과정을 무척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그렸다.

장은혜(영교 85) 선교사는 현장 공연에 감격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무용수 한 명 한 명에게 꽃다발을 일일이 전했다. 4년 전 장은혜 선교사가 교수로 일하는 에티오피아를 찾아와 음, 탕자 등을 공연한 이화발레앙상블과의 반가운 만남을 기억하는 자리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항해〉의 마침표에서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화발레앙상블의 공연은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소명을 붙잡고 힘차고 기쁘게 〈항해〉를 해가며 공연은 막을 내렸다. 조용한 중에 이화에 주신 이화발레앙상블의 큰 메시지는 유튜브로 중계되어, 영상을 타고 온 세계에 전달되었다.

이화발레앙상블은 인생의 〈항해〉를 12개의 예

글·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

빛과 나무 향기가 조화로운 고요의 공간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가 설계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는 2008년 준공된 모교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운동장이 있던 자리 지하를 깎아내어 만든 지하 6개 층의 깊고 높고 커다란 긴 공간은, 그 생김새 때문에 ‘빛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대형 건축물 한켠에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 있다. 지하 2층 B261호에 자리 잡은 ‘이미화 기도실’이다.

기도실은 ECC 지하 2층, 학생들이 공부하는 ECC 열람실 바로 옆에 있다. ECC 지하 4층으로 들어가 내부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지하 2층에 내려 몇 걸음 옮기면 ‘이미화 기도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나무 문이 바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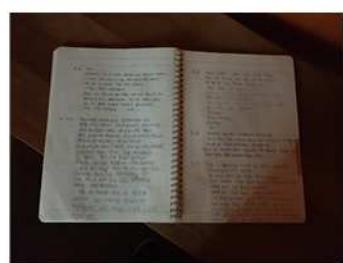
두꺼운 원목으로 된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면 절은 나무 향기가 에워싼다. 기도실을 가득 에워싼 나무 벽은 수많은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설치예술품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 ‘빛의 계곡’ ECC 안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작은 ‘빛의 계곡’에 들어선 느낌이다. 나무 블록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처럼 느껴졌다. 오래전부터 이화 안에 자리 잡아 이화인들에게 안식과 위로가 되어준 공간처럼 아늑하고 편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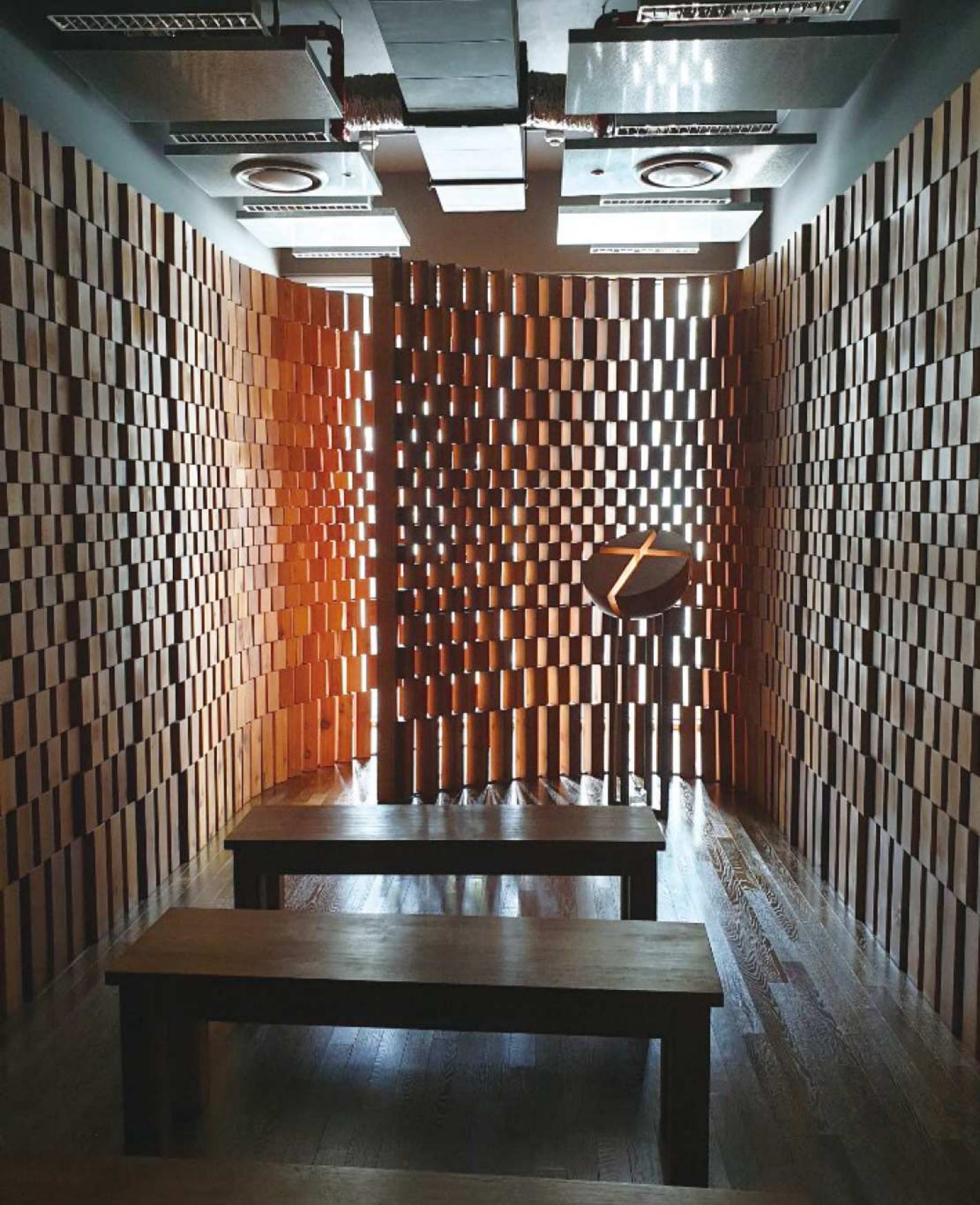
이곳은 최귀란(약학 56) 동창이 딸 이미화(사회 82) 동창을 위해 기부하며 시작되었고, 모교 대학 교회 교인들의 기부로 완성되었다. 여기에 김찬중 건축가의 재능기부가 더해져 아름다운 예술공간으로 탄생하였다.

기도실에는 특별한 십자가가 놓여 있다. 지구를 반으로 자른 것 같은 반구의 원목 안에 깊이 십자가가 패여 있고 그 속에서 은은한 빛이 우러나오게 만든 특이한 모양이다. 빛과 나무 향기가 조화를 이룬 공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오롯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고요한 공간이다.

이곳은 ECC 열람실과 정문에서 가까워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유독 많이 들른다고 한다. 총동창회 선교부가 갖다 놓은 기도 노트를 조심스레 펼쳐보니, 힘든 마음을 이곳에서 내려놓고 위로와 안식을 얻은 후배들의 마음 한 자락을 엿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모교의 많은 공간이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도실은 출입 가능한 몇 개의 공간 중 하나이다. 은총이 충만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길 원하는 이화 동창들의 안식처로 추천한다.

글·사진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이배용(사학 69) 동창 **금기 깨고 600년 서원 역사 최초로 여성 초헌관 임명**

전 모교 총장이자 명예교수인 이배용 동창이 2020년 10월 1일(목) 열린 도산서원 추계향사에서 남성 중심 제사장 금기를 깨고 우리나라 서원 600년 역사 최초의 여성 초헌관(서원의 제사에서 첫 술잔을 신위에 올리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이배용 동창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이 '2020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에서 '문화재보존(서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을 통합 관리하는 단체이다.



장혜자(영문 70) 동창 **제52대 신사임당 상(像)으로 선정**

장혜자 동창이 제52대 신사임당 상(像)으로 선정되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매년 현대 여성상의 귀감이 될 사람을 신사임당 상(像)으로 선정하여 추대하고 있다. 매년 5월에 열렸던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0월 15일(목)에 진행하였다. 장혜자 동창은 (사)갈물한글서회 회장, (사)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이사, 국제서법연합회 한국본부 부이사장으로 한글서예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선욱(법학 75) 동창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위촉**

김선욱 동창이 법무부 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김 동창은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 법무 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선욱 동창은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며, 법제처장과 모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는 2020년 11월 19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신경림(간호 76) 동창 **제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당선**

2020년 10월 20일(화) 열린 제87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38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32대, 33대, 37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경림 동창은 이번이 네 번째 당선이다.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를 거듭한 끝에 협회와 시·도간 호사회 간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경림 동창은 모교 간호대학 명예교수이며, 제19대 국회의원과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조현옥(정외 79) 동창 **주독일대사에 선임**

조현옥 동창이 2020년 11월 5일(목) 주독일대사에 임명되었다. 조 동창은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을 지낸 바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 전문가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칼루프레히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어가 가능한 것은 물론 현지 사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정엽(서양 85) 동창 '**2020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인 상**' 수상

미술가 정정엽 동창이 '2020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인 상'을 수상하였다. 정 동창은 1980년대부터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여 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주의 화가로 자리매김했다. 시상식은 2020년 10월 2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주)여성신문사가 주관하는 상이다.



노정희(법학 86) 동창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취임**

노정희 동창이 11월 2일(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노 동창은 현직 대법관으로, 대법관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따라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 임기는 6년이다. 노 동창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이어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관리하게 된다.



이은희(의학 86) 동창 **GC녹십자의료재단 신임 이사장 선임**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 이은희 동창이 GC녹십자의료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이 동창은 1990년 녹십자의료재단에 부원장으로 입사해 2007년부터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을 맡고 있다. 이은희 동창은 2010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개원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한 임상화학회 이사, 대한정도관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였고, 2014년 국제 임상화학회(IFCC)의 국제 진단검사결과 일치화와 관련된 산하기관의 부위원장(IHCCLR HOG)을 지낸 바 있다.



유명순(영교 87) 동창 **한국씨티은행 행장 선임**

유명순 동창이 2020년 10월 27일(화) 열린 한국씨티은행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신임 은행장으로 선임되어, 국내 민간은행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 되었다. 유명순 동창은 1987년 씨티은행 서울지점 기업심사부 애널리스트로 입행해 한국씨티은행 대기업리스크 부장, 다국적기업 본부장, 기업금융상품본부 부행장, 기업금융그룹 수석부행장 등을 지낸 기업금융 전문가로 지난 9월부터는 은행장 직무대행을 겸임해 왔다. 취임식은 10월 28일(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김미현(국문 88) 동창 **제31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수상**

김미현 동창이 제31회 김환태평론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020년 11월 14일(토) 전북 무주군 소재 김환태문학관 영상실에서 열린 김환태 문학제에서 이루어졌다. 이 행사는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와 문학사상사가 주최·주관하고 무주군과 전북문인협회가 공동 후원했다. 김미현 동창은 모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평론집 「그림자의 빛」으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Live Brighter, Stronger and Smarter

더 빛나게,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한국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 됩니다. 90세 이상을 살 가능성이 57% 넘을 것으로 세계적인 의학전문학술지 Lancet Neurology에 보고 될 정도로 장수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의 노력과 환경의 적절한 통제를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대서울병원 웰에이징센터(Well-aging Center)는 100년의 생이 더 밝고,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여, 보람찬 삶이 되도록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발전을 도입하여,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합니다.

신체의 나이 들어가는 과정 중 외면의 핵심은 얼굴 주름과 피부의 탄력, 근골격계의 밸런스이고 내면은 뇌인지 기능과 스트레스 및 혈관 내 대사물질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을 각각 표적 치료하고자 의학적 증거 기반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개발한 로열 프로그램(ROYAL Program)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지훈 웰에이징(Well-aging)센터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기’

이대서울병원 웰에이징센터

1) ROYAL 로열 프로그램

Rebalance 신체균형

근육과 관절 기능 회복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드립니다.

Overcoming the aging process 미용성형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진단부터 수술까지 특별합니다.
대학병원은 다릅니다.

Young and Fresh 피부미용

바쁜 일상으로 흐트러진 피부에 생기있고
윤기있는 아름다움을 되찾아 드립니다.

AI dementia protection 인지기능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가족들의 윤택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Lifetime health maintenance 맞춤건강

건강관리에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골든 타임,
웰에이징센터가 지켜드립니다.



2) Total Obesity Clinic 토클 비만 클리닉

O Clinic 비만 관리

개인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치료를 위하여
비만 치료 전문의들이 모였습니다.



제17대 모교 총장에 국제학과 김은미 교수 선임



총동창회가 구성한 공정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제17대 모교 총장으로 국제학과 김은미(사회 81) 교수가 선임되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모교 134년 역사상 두 번째 총장 직선제로 치러졌다.

모교는 2020년 8월 13일(목) ‘제17대 총장 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교수 대표 3인, 교직원 대표 2인, 학생 대표 2인, 동창 대표 2인, 법인 대표 1인, 당연직(교무처장) 1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동창 대표로는 총동창회 이명경(무용 77) 부회장과 한미경(물리 88) 총무가 참여하여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10월 19일(월) 총장 후보 입후보자 등록 공고에 이어, 10월 28일(수)~29일(목) 총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선희(의학 88, 의대 교수), 이공주(제약 77, 약대 교수), 조기숙(무용 85, 무용과 교

수), 강혜련(경영 80, 경영대 교수), 이주희(사회 87, 사회학과 교수), 김은미(사회 81, 국제학과 교수), 김성진(화학 81, 화학·나노과학전공 교수), 양옥경(영문 82,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상 기호순) 후보이다. 8인 8색 다양한 이력의 후보자들은 11월 12일(목)~18일(수) 소견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발표하고 경쟁하였다.

11월 25일(수) 진행된 온라인 1차 투표 결과 8명의 후보 중 강혜련 교수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1월 26일(목)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는 김은미 교수 가 유효 투표의 51.9%를 얻어 48.1%를 얻은 강혜련 교수를 제치고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은미·강혜련 교수를 총장 후보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추천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은 11월 27일(금)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총장 후보 중

에서 국제학과 김은미 교수를 모교 제17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총장 선출 의결에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이화학당 측은 신임 총장 선출 절차를 다시 밟아 12월 10일(목) 김은미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김은미 교수는 1981년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교수 (1987~1997)를 거쳐 1997년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임용된 후 대학원 원장, 국제대학원 원장, 국제개발협력원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현재 영국 센트럴랭커셔 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예교수직도 맡고 있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2019)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활약하였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제16대 총장 선거부터 직선제 도입

2016년 10월 총장직이 공석이었던 모교는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 끝에 제16대 총장 선거부터 모교 역사상 처음 직선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 직원, 학생, 동창 등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한다는 원칙과 4단위 참여 비율은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창 2%로 하기로 정해졌다 (1990년 제10대 윤후정 총장 선출 당시 교수 직선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5대 총장 선출까지는 교수, 직원, 동창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총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다). 투표는 현장

사전 투표와 1차 투표 및 결선 투표로 진행해야 하지만, 올해는 온라인 투표로 인해 사전 투표가 시행되지 않았다. 1차 투표 결과 1위 득표자가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고, 그 2인을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교수, 직원, 학생은 1인 1표를 행사하지만, 동창의 경우 24만 명이 모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동창의 경우만 간선제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총동창회는 모교 졸업생 중 각 과 회장으로부터 15~20명 이내로 선거권자를 추천받아 이번에 1,109명의 동창선거인단을 구성하였다. 온라인 투표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투표가 가능한데 동창은 4개 단위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100퍼센트를 기록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대비 투표 참여율은 82.1%) 동창 선거인단은 투표 당일 오전에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표 참여 링크를 받아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11월 23일(월) ‘선관위’가 공지한 바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각각 교수 947명, 직원 285명, 학생 2만 74명, 동창 1,109명이다. 집단별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창 2%를 고려한다면, 구성원별 환산표값은 교수 947표, 직원 146.5표, 학생이 104표, 동창이 24.5표이다. 비록 동창 지분 비율이 타 단위에 비해 낮지만 총동창회는 모교의 결정에 지지하고 동참하며 이화 동창들이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화를 발전시킬 비전과 전략 주요 의제로 다뤄

이번 선거에서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신임 총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데 학내 구성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그 결과 교수 89.5%, 직원 92.3%, 학생 21.5%, 동창 82.1%(2차 투표 기준)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에 앞서 11월 12일(목) 오후 3시~5시, 어느 후보자가 신임 총장으로서 제일 적합한지를 가늠하기 위한 ‘동창 대상 정책토론회’가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박병희(약학 84) 문화부장의 사회로 열렸다. 4단위(교수, 직원, 학생, 동창) 구성체 중 가장 먼저 동창 대상으로 열린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후보자와 총동창회 공정선거관리위원회(남상택 총동창 회장, 이명경·조미숙 부회장, 임진·신경희 감사, 한미경 총무, 박병희 문화부장, 이영옥 정보통신부장, 김미영 공과대학 회장, 정현미 법대·법전원 회장, 김경령 신학대학원 회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책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으며, 시청을 원하는 동창에게는 URL 주소를 보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모교 ‘선관위’ 전용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총동창회는 ‘공정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자 검증과 토론회 방법 등을 검토하며 최초의 온라인 총장선거에 대비했다.

또한 정책토론회는 사전에 각 단과대 회장을 통해 동창들의 차기 총장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수렴하여 총 여섯 개의 질문 사항을 확정하였다. 각각의 질문에는 후보자들이 이화를 발전시킬 비전과 추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동창들의 관심과 열의가 고스란히 담겼다.

정책토론회는 ‘기조 연설’, ‘여섯 가지 주제의 질의와 답변’,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은미 신임 총장 약력

-1958년생

-1981년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교 국제학과 교수이며, 모교 국제대학원 원장과 대학원 원장, 국제개발협력원 원장을 역임했다.

-영국 센트럴랭커셔 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예교수직도 맡고 있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2019)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활약하였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지문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진행 방식은 사전 질문지 제공 없이 즉석에서 질문을 제시한 후, 2020 올해의 이화인 최혜정(한음 90) 동창이 현장에서 제비뽑기하여 후보자 4명의 이름과 순서를 무작위로 정하는 방식으로 했다. 후보자들은 공평하게 네 차례의 답변 기회를 갖도록 했으며, 시간 제한을 두어 정해진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세팅하여 시간 엄수와 공정성을 기하였다.

이화 동창 대상 검증 이어져

이번 동창 대상 정책토론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

로 부각된 문제는 모교 평판도 하락과 재정 악화 관련 이슈였다. 후보들은 모두 이화의 위기에 공감하며 “이화의 대외 평판도가 이전과 같지 않다. 분명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나아졌는데 이화인의 가치는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이공주 교수)며 안타까워했고, “대학 교육은 이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이 응시자보다 더 많은 역전 현상도 시작되었다. 급변하는 환경에 이화는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여성교육 산실이라는 이화의 이념은 지속되어야 한다”(강혜련 교수)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동창 대상 토론회 특성상 동창 대상 정책(평생교육, 동창회관 건물 사용 문제) 검증과 이화의 기독교 정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은 다른 토론회와는 구별되는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온라인 시대에 국내외 동창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동창들이 잘 적응하도록 ‘동창 재교육 강화’와 ‘평생교육원 활성화’를 밝혔다. ‘입학에서 은퇴까지’(이주희 교수), ‘전 세계의 이화 동창과 학생들이 하나 되는 (온라인)스마트 캠퍼스’(양옥경 교수), ‘이화를 다시 춤추게 할’(조기숙 교수) 공약 등 온라인으로 국내외 동창의 접근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계획에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특히 이화의 기독교 정신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묻는 질문은 후보 개인의 신앙에 대한 고백, 채플에 대한 입장, 해외 파견 동창 선교사에 대한 견해 등으로 이화의 사명을 되짚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화 비전 밝혀

김은미 교수는 토론회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명문 이화’라는 비전 아래 연구 중심대학 구축을 핵심 목표 1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Frontier

10–10’ 사업을 통해 선도 연구 분야 10개, 미래형 도전 연구 분야를 10개 선정하여 1,000억 원 이상 투자함으로써 연구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대학 설립 등 4차 산업사회를 이끄는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두 번째 목표로, 마지막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연구 역량과 교육 역량 강화’ 계획을 밝혔다.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모두에게 공약을 분석한 맞춤 질문을 제시했다. 이 중 김은미 교수에게는 공약한 ‘연간 재정 수입 1,000억 증가와 임기 중 기부금 2,000억 원 모금’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김 교수는 ‘R&D 총괄본부’를 설립하여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더 수주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미 교수는 발로뛰는 총장으로 ‘기부금 모금 활성화’ ‘대학원 등록률 제고와 내외국인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학원 신설을 통한 교육 수입 창출’ ‘비학위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치고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모교를 위한 끝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총장이 되는 한 분과 일곱 분의 후보자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모아 이화의 앞날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제17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은미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1일(월)부터 4년이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어린이 인권과 복지를 위해 평생 일하다



제14회 '아름다운 이화인'상을 수상한 심현숙(사복 62) 동창은 미국 미네소타 한인회 이사이자 미국에서 'Best Social Worker'로 인정받은 사회복지사이다. 심 동창은 미네소타 한국 아동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과 한국 아동 문제 자문 활동 및 한국 아동을 위해 평생 일해 왔다. 또 7년간 미네소타 한인회장을 역임하며 한인 2세나 입양인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에 매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해 왔다. 미네소타에서는 두 차례나 '한현숙의 날(미국에서는 남편 성을 따라 '한현숙'으로 활동)'이 선포되었고, 국내에서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바 있다.

평생 입양과 관련된 일을 하셨고, 미네소타 한인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요즘은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 입양과 관련된 일은 1964년 1월 한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고아가 많았던 시기였지요.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을 담당하다가 1975년 미국으로 와 미네소타 아동복지회에서 Social Worker로 30년 동안 일했고, 한국 아동 입양 가정 지원, 한국 아동 문제 자문을 비롯하여 한국 아동을 위한 지역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인도 선교사를 후원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입양기관을 돋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부터 7년 동안 미네소타 한인회장을 맡았고 지금까지 한인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을 전공하셨습니다. 사회사업이나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한국전쟁 경험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맏이로 12

세였고, 동생들이 일곱 살, 네 살, 두 살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전쟁 나기 전날 아기를 낳았지요. 아버지가 경성주식회사를 다녔는데 피난을 가지 않으면 잡아간다는 정부의 말을 듣고 김장김치와 쌀, 그리고 장작을 많이 마련해 놓고 피난을 떠나셨어요. 저에게는 엄마를 모시고 있으라고 하고요. 1월 4일이 되었는데 군인과 경찰이 와서 어서 피난을 가라고 해요. 할머니께서는 풍이 들어 원팔을 못 쓰셨지만 걸을 수는 있어서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업고, 저는 두 살짜리를 업었어요. 네 살짜리 남동생은 친척분이 지게 위에 메고 가 주셨어요. 안양까지 가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려고 보니 춥고 배고파서인지 아기가 죽어 있었어요. 눈 더미 위에 버려진 아기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피난 가며 버려진 아기들이 엄청 울었는데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울면서 "애들아 지금은 내가 내 동생을 챙기느라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애내려놓고 오면 너네들 도와줄게." 중얼거리며 그 길

을 지나 온양온천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로 갔어요. 그곳은 엄청 좁았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제가 식구를 끌고 다녀야 했어요. 피난살이를 다섯 달 정도 했는데 저한테는 5년 같았어요. 이런 고비를 겪고 나서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공이 무엇인가 알아보다가 사회사업과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1964년 국제사회봉사회에서 일하셨다고 하는데 국제사회봉사회란 어떤 조직이고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와 입양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졸업할 무렵은 전쟁 후라 직업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사회사업 전공자인 것을 알고 저에게 국제사회봉사회(ISS, International Social Service)에 가보라고 했어요. 해외입양단체인데, 본부는 스위스에 있고 미국 지부가 뉴욕에 있는 이 단체에서 이화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를 자문으로 위촉하여 양자회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입양 갈 아이들을 사무실로 데려와서 임시위탁 가정에 보냈다가 양자로 보내는 일을 했지요, 아기들과 양자를 보낼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회사업과의 일이었어요. 아이가 오면 서류를 꾸며 뉴욕에 있는 ISS 지부에 보내 양부모를 찾아 주었는데, 비자라든지 양부모에게 갈 수 있도록 수속하는 등의 업무를 했어요. 국제입양단체에서 저를 뽑은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특히 다문화 배경의 아동에게 차별이 심했어요. 해외 입양을 가지 못한 아이들은 차별로 인해 한국에서 살기 힘들었어요.

미네소타 아주 전후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요?

– 국제사회봉사회 이후에 저는 국내 입양기관에

서 꽤 오래 일을 했어요. 미국에 'Christian Reformed Church'라는 국제선교단체가 한국 농촌을 돋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와주러 온 미국 선교사들의 집 문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많았지요. 그래서 한국은 농사도 필요하지만, 고아를 살리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입양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논의되었고, 이 일을 위해 콜로라도주에서 파견된 분이 저에게 같이 일하자고 하셔서 국내 입양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국내 입양을 처음엔 반대했지만 생명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생각이 달라졌지요. 당시에는 딸을 낳으면 딸을 버리기도 했어요. 이런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선교사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차차 한국 사람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것이 외국에 아이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인식이 생겼지요, 저는 해외 입양은 직접 하지 않고 국내 입양을 담당했어요. 한국에서 입양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해외 입양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홀트아동복지회로 연결을 했지요. 저는 특히 국내 입양을 위한 홍보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한국 최초로 인기 가수를 초청해 기금 마련 디너 행사를 했고, 교회나 언론을 통해 국내 입양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다 미네소타 아동복지회와 연이 닿아 미국으로 오게 되었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미네소타주의 한국 아동 입양 역



심 동창은 양자회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 입양 업무를 담당했다

사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한국에서 고아를 데려오거나 양자를 삼으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공식 입양기관이 생겨서 한국 아동이 공식 입양 절차를 밟아 들어오게 되면서 입양아가 더 늘어났어요. 미네소타 아동복지회를 통해 이곳에 데려온 입양아가 1만 명이 넘어요.

평생 입양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소중하게 생각하신 가치와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이 질문에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의 인권’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지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모를 가져야 할 권리가 있어요. 입양을 하더라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감사한 일을 세 가지만 꼽으신다면요?

- 저는 제가 최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먼저 제가 만났던 상사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그분들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지 않고 모두 저를 지원해 주셨어요. 제가 워크숍을 많이 했는데 15개의 주에 직접 가서 강연하고, 책을 쓰기도 하며 끊임없이 일을 벌였지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좀 크면 도망가기도 하는데, 자기 부모한테는 전화하지 않아도 저에게는 전화를 했어요. 집에 돌려보내는 일도 많이 했지요. 마지막으로 양부모들이 고맙다며 꽃을 보내 주는 일도 많아요. 양부모들이 저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기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요. 아이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양부모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입양은 양부모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었지만 저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이 여기서 몹시 아팠는데 제가 내과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무료로 수술을 해주기도 했어요.

입양은 전쟁고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종식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입양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입양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과제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아 숫자가 세 배가 늘었어요. 먹이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니 전쟁이 끝나도 고아가 더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벼려진 아이가 세 살 미만이면 아동병원에 데려왔는데 아동병원에 들어가면 거의 50%가 죽었어요. 입양기관에서 양자로 못 보내더라도 애들을 가정에서 위탁하여 키워주는 Foster Home을 경영했어요. 그랬더니 아동이 500명이 들어오면 1~2명 죽을 정도로 사망률이 줄었어요. 아이가 부모 품속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전쟁고아보다 식량 고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전쟁이 끝나도 고아 숫자가 줄지 않았는데 국가



이대 재학 시절 사진

에서 미혼모를 지원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 후부터 버려지는 아이의 수가 많이 줄었어요. 입양 문제가 해소되려면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아이들이 버려질 수 있어요.

미네소타 한인회에서는 회장 재임 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는지요?

– 한인회관을 마련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회비와 기부금 납부자 명단을 만들고, 한인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을 뽑았어요. 또 펀드레이징도 열심히 했지요. 모두 열의를 갖고 펀드레이징에 참여해 주어 3년 반 만에 작은 빌딩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또 한인회에 한글학교를 열어 운영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총영사관에 진정하여 영사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글학교에서는 한인 2세와 입양아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했고, 광복절 행사를 개최하고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 2세 교육에 힘썼습니다. 한인과 관련된 일은 주로 저에게 연락이 많이 와요. 이 동네를 지나가던 여행객이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회장님밖에 이야기할 곳이 없다고 연락이 와서 도와드린 일도 있고요. 제가 한인회장으로 할 수 있는 별별 일을 다 했어요. 이걸 다 쓰려면 책을 한 권 써도 될 정도네요.(웃음)

선배님의 학창 시절이 궁금합니다. 이화를 선택한 이유와 이화에서 만난 친구, 교수님과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이화에 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가기 원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선택이 달라진 것을 아버지에게 말씀도 드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화에 가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펄펄 뛰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는 사회사업학과가 없었고, 이화여자대학교에만 있었습니다. 이화에 입학하고 보니 이렇게 좋은 대학교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 앞에 잔디밭에서 점심도 먹고,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 강의 시간이 없으면 낮잠도 자고, 여자들끼리 다니는 대학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화를 택한 것이 너무 잘한 일이라고 8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 친구들도 많고요, 이화여대 교수님들은 제자들을 참 아름답게 기르셨어요.

저를 가장 많이 챙겨주신 분이 이화여대 문리대학 이현구 학장님이셨는데, 문리대학 학장님을 오래 하신 분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2학년 때 문리대학 학생회의 부회장이 되었는데, 학장님의 지도를 받아 결국 나중에 저도 총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김옥길 선생님이 그때 총장님이 되었습니다. 김 총장님은 범접하기 힘들 만큼 대단한 분이었지만 학교에서 만나면 다정하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김 총장님께서 영면하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TV에 네가 나올 때마다 우리 현숙이가 또 나왔구나.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했다. 네가 미국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꼭 네가 나를 찾아와야 나를 존경하는 거니? 네가 이화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소개도 하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네가 자랑스럽고, 네가 이화대학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라고 해주셨습니다.(웃음) 지금도 눈물이 나오네요. 그리고 봉투를 주시면서 “너는 사회사업

가라 월급도 많이 못 받는다던데 네가 월급도 많이 못 받으면서 사회사업한다고 얘를 쓰는 것을 내가 조금도 도와주지 못했다. 적은 돈이지만 꼭 네가 써라” 하셨지요. 총장님이 주신 그 돈은 당시 20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였어요. 당시 제 월급이 2,000 달러도 안 됐을 때예요. 이렇게 귀한 돈을 김옥길 총장님이 주셨는데 제가 쓸 수 없어서 이화재단에서 사회사업하거나 선교하는 곳을 찾아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여쭤보고, 그곳에 기부하여 아프리카의 가정에 자봉을 지어 주었습니다.

총학생회 시절 활약상을 듣고 싶습니다.

- 제가 졸업하고 한참 지났을 무렵 한 기자가 제가 존경하는 문리대학 학장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많은 학생회장 중에 누가 가장 활약했는지 누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물었는데,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보시더니, 심현숙이라고 해주셨어요. 그 아 이처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처음 한 일은 단과대학교 학생회가 총학생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또 문리대 학장님께 국내 최고 여성 교육기관으로서 이화대학의 권위를 회복할 테니 앞으로 학장님의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화대학의 명예를 드높일지에 대한 방법들을 생각했어요. 그때 한 선생님께서 경찰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해양 경찰에는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다른 나라 어선들을 쫓아낼 배가 없다고 들으셨대요. 그 말을 듣고 형값으로 무궁화색 물을 들여 꽃 브로치를 팔아 돈을 모았어요. 전교생이 8,000명이 넘었을 때니 다 같이 돈을 모아 경비정을 사서 기부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제일 큰 사건이었지요. 그밖에 사



은퇴 후 인도 선교사를 후원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치스러워 보인다고 지적받던 양산을 쓰지 말자는 운동을 하여 교내에서 양산 쓰는 모습이 사라졌고, 농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책을 공급하는 일도 했지요. 이화대학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하면 굉장히 스케일이 컸지만 이런 일을 여기저기 알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학생들은 숨어서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화인으로서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학교를 다녔는지, 이화를 졸업했다는 것에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니 어디를 가도 이화 졸업생이 있어요.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말하고 다녀도 좋아요. 저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왔으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후배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채플을 열심히 듣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몰라도 언제든지 내 믿음을 펼 수 있고, 어딘가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화대학 동창이라는 긍지와 굳건한 신앙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및 정리·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고객과 직원이 나의 주인,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해

우리에게는 테팔이라는 브랜드로 익숙한 그룹세브(SEB/Société d'Emboutissage de Bourgogne)는 185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주방용품 및 소형가전 기업이다. 그룹세브코리아 대표 팽경인(사회 86) 동창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그룹세브를 국내 시장에 성공리에 안착시키고, 테팔이라는 브랜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20여 년간 한 직장에서 신뢰와 존중의 문화 실천

“그룹세브의 목표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일상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코팅 프라이팬 등 기존 주방용품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청소기, 스팀다리미, 공기청정기, 이미용기, 에스프레소 등의 기술 개발로 생활가전 영역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WMF와 같은 하이엔드(명품) 부문의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의 주방가전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언론에서 그룹세브코리아를 현지화 전략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을 만큼 테팔의 성공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국형 바비큐 그릴, 미니 막서 등은 한국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한 그룹세브코리아

가 본사에 개발을 요청하여 제품화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그룹 내 최초 현지인 대표이자 국내 출범부터 함께한 장기 근속 멤버인 팽 동창의 지난 시간들은 그룹세브코리아의 역사가 되었다.

“20주년 되었을 때 직원들이 제게 캐리커처를 선물로 주면서 한 직장을 오래 다닌 비결이

뭐냐 했어요. 그동안 한 해도 같은 해가 없이 발전적인 변화를 해왔어요. 혁신하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기존 제품은 재포지션을 하면서 한 해도 지루하지 않았지요. 저희 그룹의 가치 중의 하나가 존중(Respect for People)이에요.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기업 문화에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그 모습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 시장을 연구하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본사에 기술개발을 요청하면 본사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주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 성과를 올리는 선순환이 이어진 것이지요.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서치 회사에서 코닝을 거쳐 그룹세브로

팽 동창은 사회학을 전공했다. 대학원 졸업 후 유학을 계획했지만 당시 만나던 지금의 남편은 철학을 전공한 운동권 학생이었다. 둘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했다.

“사회학과 대학원 졸업 후 첫 직장이 마케팅 리서치 회사인 A.C.닐슨이었지요. 인력과 시간이 자산인 리서치 회사에서는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느냐가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밤샘을 해가며 6개월을 6년같이 집중해서 일했어요. 닐슨에 워낙 프로젝트도 많았구요.” 팽 동창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곳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마케팅 리서치를 섭렵했다. 마지막 맡은 프로젝트는 미국 ‘코닝’ 사의 브랜드인 갈색 유리 냄비 ‘비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였다. 클라이언트였던 코닝에서 팽 동창이 작성한 마케팅 제안서를 수락하며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코닝으로 옮겨 자신이 닐슨에서 개발한 전략을 실행하여 비전이라는 브랜드를 성공시켰다. 더 나아가 팽 동창은 비전에 편중된 코닝의 브랜드를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코렐’을 출시했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시장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양식기 코렐은 본격적인 국내 출시 전에도 미군 부대를 통해 들어와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브랜드였다. 얇은 유리 재질인데 가볍고 잘 깨지지 않아 쓰기에 편리하지만 양식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소비자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제품 매출을 올리고 시장을 확대하려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매일 쓰도록 해야 했지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볼과 시리얼볼을 묶어 ‘공기 대접 세트’라는 이름을 지어 론칭했어요.” 공기 대접

세트의 빅 히트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코렐의 우리나라 시장이 성장하면서 한국 코닝의 영향력도 커졌다.

“이렇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제 나이가 35세였어요. 직장생활을 9년 하니, 안정은 되었지만 앞으로의 커리어나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지요. 코닝 제품은 유리, 자기라는 한계가 있었고 당시에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다 보니 매장의 피드백을 직접 받을 기회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때 그룹세브로부터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니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룹세브로코리아는 제품군도 훨씬 다양하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니 유통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룹세브로는 세계적으로는 소형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이 주방용품만큼 커지만 한국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룹세브로는 주방용품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이를 통해 가전제품의 월드와이드 위상을 한국에서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1997년 8월,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그해 10월 팽 동창이 조인하자마자 한 달 만에, 한국에 IMF 재정 위기가 왔다. 본사에서는 철수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한국을 담당하는 본사의 수입 담당 매니저의 설득으로 안전한 주방용품 부문에 먼저 진출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가전에 투자하기로 결정되었다. 팽 동창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 주방 담당 마케팅 매니저로 입사했던 팽 동창은 IMF 직후 조직 변경으로 입사 6개월 만에 가전까지 총괄하는 마케팅 매니저가 되었다. 10년간 마케팅을 담당했고, 이후 세일즈 디렉터를 거쳐 2009년 9월, 팽 동창은 그룹세브로코리아 최초의 현지인 대표로 취임했다. 팽 동창은 재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방 가전 시장을 장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된 한국 모델을 전세계 그룹세브로 확산시키며 그룹세브코리아를 틴탄하게 키워냈다.

조력자들에게 배운 경영 원칙들

팽 동창이 그룹세브코리아의 수장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중 세 명만 꼽아 달라는 말에 팽 동창은 자신에게 직장생활과 마케팅의 ABC를 가르쳐 준 마케팅 분야 첫 직장 코닝의 박종석 부장을 첫 번째로 꼽았다.

“박 부장님은 실질적인 마케팅 파트 한국 대표였고 엄격하고 철저한 상사였지요. 사흘간 고심하여 저에게 Kay라는 영어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발음이 쉽고 기억하기 좋아 비즈니스할 때 덕을 봤어요. 당시 본사 CEO가 현지 대표들에게 현지 시장과 경쟁사 동향을 분석한 마켓 인텔리전트 리포트를 매월 보내도록 했어요. 박 부장님이 어시스턴트였던 저에게 리서치 회사 출신이니 리포트를 한번 써보라 하셨지요. 자료조사 정도 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왕 조사하는 김에 조금 더 노력하여 보고서로 만들어 전냈더니, 본사에 보고할 때 저의 보고서를 함께 보내 주었고, 석 달째부터는 직접 보고할 기회를 주셨지요.”

본사에서는 Kay가 어시스턴트임에도 보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미루어 현지 전문가로 짐작했고, 이 일은 본사 임원들이 한국에 올 때 Kay를 찾으라고 할 만큼 팽 동창이 노출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 경험을 계기로 팽 동창은 후배들에게 ‘한 발만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한다. 한 발만 더하면 권한을 받고, 권한을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장은 한국말 보고서 대신 영어 보고서를 쓰게 함으로써 팽 동창이 보다 빨리 영어를 익힐 수

있게 했다. 지금처럼 업무 영어에 대한 책이 많지 않던 당시에 팽 동창은 그룹 내에서 함께 일하는 미국 파트너들의 영어 표현을 분야별로 노트에 메모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쓰는 적절한 표현을 쓰고 익히며 그들과 소통했다. 몇 개월이 지난지 않아 팽 동창은 영문과 출신보다 더 생생한 언어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룹세브코리아에서 팽 동창에게 세일즈 디렉터를 제안하고 매니징 디렉터(사장)를 만들어 준 자비에 데무띠에이다.

“이분에게는 리더십을 배웠지요. 제가 마케팅 디렉터일 때 사장으로 여기 오셔서 제 보스로 3년, 또 아시아 사장으로 6년, 총 9년을 같이 일했어요. 제가 현지 대표로서 고민을 이야기하면 조언해 주며 마지막에는 ‘그런데 나한테는 네가 제일 중요해’ 라며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이분도 업무적으로 매우 유능한 분이어서 이분과 미팅을 할 때는 항상 긴장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했지만, 끝나고 나올 때는 늘 자신감이 들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 더 잘해야지 하며 에너지를 받아서 나왔어요. 나를 믿어주고 지원해 주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분의 리더십을 보고 사장이 됐기 때문에 대표로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던 듯해요. 그런 좋은 멘토를 갖게 되었던 것과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07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때 삶의 지향점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대표로서 일할 때 경영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 실패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라는 말이었어요.

거기서 물론 주인이라
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비즈니스를
할 때도 누가 주인인가
를 아는 게 가장 기본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
었지요. 그때 제가 마
침 세일즈 디렉터였어

요. 세일즈는 고객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또 대표가 되어서는 직원들이
저의 주인인 것이지요. 직원들에게 더 공감하고 직
원들과 고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룬 의미 있는 성과들

그룹세브코리아가 현지화를 통해 성공한 대표
적인 사례는 삼겹살용 그릴이다. 테팔 그릴의 원리
는 하단에 물이 있어 요리가 되는 동안 기름이 물
아래로 빠지도록 되어 있다. 기름이 물로 내려가니
냄새와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 제품으로 삼겹살을
구우면 좋겠다 생각한 팽 동창은 코렐의 밥공기처
럼 삼겹살용이라 이름 지어 판매하여 시장을 석권
했다. 삼겹살 그릴은 한국인만을 위해서 개발된 건
아니었지만 국내 시장이 커지고 나서는 한국인을
위해 양념구이와 전골까지 할 수 있는 바비큐 그릴
을 개발했다. 미니 막서도 한국에서 개발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경우다.

“비즈니스 관련 인터뷰를 하면 고맙게도 기사
타이틀이 거의 똑같아요. ‘현지화’, 우리가 진짜
역점을 두는 걸 잘 알아주셔서 감사하지요.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한국 주부의 마음에 테
팔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어요. 지금까
지 이 일을 위해 매진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



테팔 차세대 프라이팬 런칭쇼

각이 들 만큼 정확하게
표현한 제목이었지요.
소비자들의 마음에 테
팔이라는 브랜드를 심
었던 것이 가장 큰 성
과였어요.”

2018년, 그룹세브코
리아는 직원들의 설문

조사와 조직문화 공격심사 등으로 기업 문화를 전
반적으로 평가하는 GPTW(Great Place to Work)에
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해 왔지만 외부적인 진단을 통해 부족한 점
을 파악하고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했
는데, 회사는 대상을, 팽 동창은 CEO상을, 그리고
HR 매니저는 혁신리더상을 받았다. 본사에서 받
고 싶어 하던 상이었는데 한국이 그룹 최초로 받았
다고 한다. 팽 동창은 직원들이 회사의 노력을 알
아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뻤다고 소감을 전한다.

그에 더하여 팽 동창은 최근 세계여성이사협회
창립 4주년 포럼에서 경영 참여를 통한 여성의 사
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테팔이 국내 1위 주방용품 브랜드, 국내 소형가
전 업계를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요인은 고객 중심의 세심한 마케팅 활동과
독창적인 신제품 출시 등의 전략과 혁신적인 기술
력이다. 테팔은 집밥 캠페인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튜브
를 통해 테팔 제품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유명 세프와 협업을 통해 테팔을 보다 친근하게 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뚝배기, 라면, 전골 등 냄비를 용도별
로 구분하여 용도에 따라 최적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소비자 취향을 저격한 한국형 냄비를 출시했다. 라면 냄비는 물 조절을 위해 계량 눈금을 표시하고, 뚜껑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매끈하고 오목하게 설계 했으며, 뚝배기의 뚜껑

은 내용물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기능적으로 설계하고 수분이 균일하게 떨어져 풍미를 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테팔은 생활가전 시장에서도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기존 주방용품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 론칭쇼를 통해 소개된 차세대프라이팬이 대표적이다. 테팔의 차세대프라이팬은 초고밀도 크리스탈 입자로 코팅력을 6배 강화하고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풀와이드 인덕션 기능으로 바닥을 인덕션에 최적화하고, 열센서를 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혁신한 제품이다.

성취와 기여의 균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다

팽 동창은 좋은 대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운다. 그의 지인은 이러한 팽 동창의 특징을 ‘성취와 기여의 균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CEO’라 묘사했다. 그룹에서는 경영인들에게 유럽의 인시아드나 아이엠디, 에섹 등 비즈니스 스쿨에 코스를 만들어서 그룹의 최고매니저들에게 그룹의 가치나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통해 그룹 내 다양한 사람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팽 동창은 이러한 그룹 차원의 교육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서강대 국제경영대의 코칭 프로그



테팔 사랑나눔 바자회에서

램이나 CFO 스쿨 등에 등록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피터 드러커 등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꿈 빠니아 스쿨과 같은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회사 규정상 3년 후

면 은퇴를 하게 되는 팽 동창은 “유능하고 역량 있는 한국 대표에게 일을 물려주고 퇴임 후에 회사가 더 잘되도록 기틀을 잡는 역할을 해놓고 나가는 것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내놓는다. 팽 동창은 은퇴 후에 그 동안의 비즈니스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눌 예정이다. “제가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CEO 모임을 하는데 장학재단 멘토링 프로그램에 여성 멘토가 너무 없다고 하여 기꺼이 멘토를 수락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저의 에너지 소스는 책임감이거든요. 오늘 내가 이렇게 뭔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지요”.

마지막으로 팽 동창에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화의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내가 평생 열정을 바칠 사명이 있는 분야인지,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인지, 두 가지를 검토하여 사업 영역을 정해야 합니다. 영역을 정했으면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Ask for Help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지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먼저 도움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제14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로 심현숙 동창 선정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2020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열렸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나눔과 섬김, 봉사를 통한 이화 정신의 실천자로서 밀알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에게 총동창회가 드리는 상이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이 상의 후보로 총 3인의 동창이 올랐으며, 위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된 3인의 후보자들의 이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실사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아동 복지와 입양아 인권을 위해 헌신한 심현숙(사복 62) 동창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경숙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명경 부회장, 한미경 총무, 박병희 문화부장, 이영희 홍보부장, 김용재 약대 회장이 참석했고, 모교 최유미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하였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매년 연말 1,200명의 동창이 참석하는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하는데 올해는 행사가 취소되어 내년 열리는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총장 선거 등 화상 회의로 논의

10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10월 정기 임원회가 참석 33명, 위임 5명, 불참 4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줌(Zoom) 화상 회의로 열렸다. 개회선언에 이어 찬송가 합창,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 김인

정 서기의 9월 회의록 낭독, 임선희 회계의 9월분 회계 보고가 있었고, 각 부 및 대학(원)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어 대바자회 평가 등 안건 토의를 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사흘간의 온라인 대바자회에 31개 팀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다”며 각 대학(원) 회장과 각 부장 등 임원진에게 감사의 인

사를 전했다. 대바자회 평가를 하며, 올린 영상에 물건의 이름과 가격 및 연락처가 없어 아쉬웠다고 전한 과도 있고, 동영상이 빠르게 지나가 동창들이 물건을 검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처음으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며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미 영상으로 제작된 것은 수정이 어려워 댓글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600여 켤레의 구두와 옷을 ‘오브엠’과 ‘앙스모드’로부터 기부받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판매 중이니, 방문 일자를 예약하고 구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 제17대 모교 총장 선거를 안전으로 다루었다. 총동창회 측 선거관리위원회인 이명경 부회장은 총장 후보 선거 일정과 전자투표에 대해 안내하고, 후보 등록 후에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공명한 선거를 당부했다. 한미경 총무는 동창 선거 인단은 각 학과에서 기 대표를 중심으로 연령을 고르게 분포하여 15~20인을 선정할 것이며, 선거 인단은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제출 후 선거인단 개인이 선거 관련 모교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

고 개인 URL을 부여받아 투표권이 부여된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투표는 두 차례 걸쳐 실시되고 1차 투표에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여 결선 투표가 진행됨을 안내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후보자 토론회에서 질의할 내용을 준비해 줄 것을 임원들에게 요청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예정된 ‘이화인의 밤’ 행사 취소 건이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020년 이화인의 밤’ 행사가 취소되었음을 안내하고, 행사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모교발전기금을 따로 모금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임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끝에 이화인의 밤 행사 티켓(15만 원)보다 조금 낮은 가격(10만 원)에 후원 티켓을 발매해 모교발전기금을 모으기로 하였고, 모금에 동참하는 이화 동창들에게 감사카드와 선물을 증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차기 총동창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출위원회 구성을 위해 11월 정기 임원회에서 선출위원을 뽑을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모교발전기금 모교에 전달

11월 정기 임원회가 11월 19일(목) 오후 2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28명 참석, 위임 9명, 불참 5명으로 성원이 되어 오랫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다.

지난달에 이어 제17대 모교 총장 선거에 대한 고지가 있었으며, 총동창회 선거인단은 1,109명임을 안내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동창들이 기

권하지 않고 전원 투표를 해줄 것을 각 단과대학 회장들에게 당부하였다.

‘2020 이화인의 밤’ 행사를 대체하여 ‘2020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를 열기로 한 총동창회는 후원 티켓 1,200장을 준비하여 티켓당 10만 원의 후원금에 대한 감사 카드와 브로치, 베이커리 쿠폰, 2021 동창 수첩을 선물 포장하여 준비하였으며 각 단과대학별로 수령해 줄 것을 부탁하고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택배도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이화가족 성탄예배’는 이미 동영상 촬영을 완료하였고 12월 3일(목) 총동창회 공식 채널을 통해 영상을 올리기로 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동창들이 선배로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채플 참석의 중요성을 후배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줌(Zoom) 화상을 통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남상택 총동창회장, 이명경·조미숙 부회장, 한미경 총무, 이영희 홍보부장, 박순원 지역부장 등 임원들이 참석하였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베트남 호치민 지회 인준 요청 건이 있음을 알렸다. 호치민 지회는 3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었고 회칙과 재정적 여건 등 지회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에 총동창회 지회로 입회 승인을 의결하여 통과하였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2020년 총동창회에서 모교발전기금 1억 원 약정서를 모교 김혜숙 총장에게 전달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서도 모교발전기금을 기부해 준 동창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일정 기간 적정한 활동이 인정된 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법인 설립에 관한 기본 요건은 준비해 놓은 상태 이므로 회계 절차상 내년 차기 회장단이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렸다. ‘이화동창 발전연구재단(가칭)’ 외에 재단에 알맞은 이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0년 정기 임원회 마무리

12월 정기 임원회는 12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화상 회의로 열렸다. 개회선언과 기도, 전 회의록 낭독과 회계보고, 각 대학 및 부 보고에 이어 총동창회 활동 및 행사 보고와 안건 토의가 있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이화 후원 행사나 북미주지회연합회 행사 모두 비대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훌륭하게 치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특히 “2020 이화를 응원합니다는 예정한 후원 티켓 1,000장을 완판하고 추가로 300장

더 판매하여 모교발전기금 1억 원을 모아 모교에 전달 수 있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12월 3일(목) 총동창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화가족 성탄예배 역시 간소하지만 경건한 공연과 말씀으로,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했다는



반응을 임원들과 나누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이화가족 성탄예배가 무척 감동적이었다”는 국내외 반응을 전하며 동영상 저작권 문제로 영상이 지금은 공식 채널에서 내려져 아쉽다고 말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회칙 7조의 3에 의거, 차기 총동창회장단 선출을 위한 추대위원회 위원 7명이 정식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렸으며 임

원들이 이를 인준하여 공표되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올해 많은 비대면 행사가 있었다”고 한 해를 자평하며, 그래도 무사히 행사를 다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이화 동창들의 모교 사랑과 이화 정신의 발현 때문이라고 정의하며 한 해 동안 봉사하고 총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임원들과 이화 동창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선교부 소식

동창 선교사들의 편지와 기도를 모아서 이화역사관에 전달

1988년 총동창회 안에 선교부가 세워진 후 선교부에서는 이화 동창 선교사들을 찾게 되었고 2000년부터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이화 동창 선교사 기도수첩>을 제작하게 되었다.

총동창회 선교부원들은 미국의 한 여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이화에서 그 선교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상명령(행1:8)에 순종하여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화 동창 선교사들은 교사, 의사, 번역가, 간호사, 목사, 사회사업가 등의 직종에 종사하며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선교 소식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선교부에 보내오고 있

다.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대 다락방에 모여 130여 명의 이화 동창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 기도들은 이화에 쌓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내용이다.



20여 년 쌓인 소중한 이화 동창 선교사들의 기도들이 이제 이화역사관으로 이전, 보관되고 있다. 1차로, 2006년부터 2018년의 편지들을 지난 10월 13일(화) 이화역사관의 손현지 연구원에게 전달하였다. 그 편지들에는 이화에서 올린 기도의 향이 주님께 닿아 땅끝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화의 충성스러운 선교사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차곡차곡 이화의 선교 역사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장은혜(영교 85) 선교사는 “이화 동창 선교사들의 편지는 후배들이 선교 사명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하며, 또한 이화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된다”고 이 편지들이 이화 역사관으로 동행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아무쪼록 이 기록들이 이화의 선교 정신을 보존하고 앞으로도 이어가는 데 있어 귀한 역할을 하길 바라며 이화의 선교를 이어가시는 주님을 찬양 드린다.

글·이수진(조소 05)

사범대학,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연속 A등급 획득

모교 사범대학(학장 황규호)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모교 사범대학은 1주기(1998~2002년), 2주기(2003~2009년), 3주기(2010~2014년), 4주기(2015~2017년)에 이어 이번 5주기(2018~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교

육 여건, 교육 과정, 성과 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질을 제고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4월부터 사범대학이 설치된 전국의 교원양성기관(45개교)을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실시했으며, 모교 사범대학은 A등급을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 신임법관' 4명 배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현미)은 2020년도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배출 대학 순위에서 누적 인원 국내 3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법조인 배출기관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대법원이 2020년 10월 20일(화) 신임 법관 임명식을 진행한 가운데,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 4명이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에 임용됐다. 이로써 모교는 법전원 출신 법관이 처음 임용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7명의 법관을 배출, 전국 25개 법전원 중 서울대(29명), 성균관대(2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법관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입학정원 대비(누적)로는 서울대에 이어 국내 대학 2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신임 법관 임명자는 김정은 판사(법전원 1기), 강은지 판사(법전원 3기), 김지영 판사(법전원 4기), 이지희 판사(법전원 4기)다.

제7회 윤후정 통일포럼 개최

모교는 '제7회 윤후정 통일포럼'을 2020년 10월 27일(화) 오후 2시 EOC 이삼봉홀에서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팬데믹 시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이라는 주제하에 의학계를 비롯해 정치외교학·국제지역학·미디어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2시 주관기관인 통일학연구원 김석향 원장(북한학과)의 사회로 문을 열어 김혜숙 총장의 인사말,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 이어진 2부 행사는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사회로 김홍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동북아 국제관계 전문가인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민감계층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인 하은희 의학과 교

수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인 김용찬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각자 전공 분야의 전문가적 의견과 관점을 펼치며 심도 있는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토론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 및 코로나19가 야기한 변화들을 짚어보고,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겨내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윤후정 통일포럼은 한국 최초의 여성 현법학자 이자 제10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한 윤후정 전 명예총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단 극복'이라는 신념에 따라 2013년부터 15억 원을 기부하면서 마련된 통일 논의의 장이다.



제1회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 시상식 및 기념전시회

한국여성연구원(원장 강애란)은 2020년 11월 10일(화) (재)현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제정된 '제1회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여성연구원은 1977년 한국 최초로 여성

학 수업을 개설한 이래 반세기 동안 한국의 여성학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여성학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여성학 연구가 활발해지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여성학을 통해 여성들이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여성연구원은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 제정을 통해 여성과 평화를 키워드로 하여 각 학문 분야에

서 한국 여성 문제를 연구하고 실천해 온 학자들의 업적을 치하하고 격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혜숙 총장, 현우문화재단 최청규 이사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애란 한국여성연구원 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김혜숙 총장의 축사와 사상, 정지영 아시아여성학센터장의 심사평과 수상자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제1회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을 수상한 김은정(특교 96) 미국 시러큐스대 교수는 장애·젠더·섹슈얼리티 연구 분야의 권위자이다. 김 교수는 모교 특수교육학과와 동대학원 여성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젠더와 여성학을 부전공하고 장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치유의 폭력(Curative Violence)』으로 미국 여성학학회 선정 ‘앨리슨 팝마이어 북어워드’(2017)와 미국 아시아학 협회 선정 ‘제임스 팔레이즈 북프라이즈’(2019)를 수상했으며 건강과 정상성에 기반한 사회에서 타자화 되어 온 장애여성과 성소수자, 노인, 만성질환인의 경험과 인권에 대한 문화적 재현, 테크놀로지, 예술과 사회운동의 접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훌륭한 저서와 논문을 통해 한국 문화 속에서 ‘장애’가 다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치유와 재활’ 이데올로기 이면에 숨겨진 폭력성을 밝혀내는 등 여성학과 장애학 연구에 중요한 업적을 세우고 각 영역의 학문적 지평을 확장 심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 교수는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치유의 폭력: 근대 한국의 장애, 젠더, 성의 재활’을 주제로 그간 진행해 온 본인의 연구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특강을 통해 “치유된

미래를 위해 장애를 가진 현재의 삶이 부정되고 유예될 때 이는 폭력으로 작용한다”며 반폭력과 평화를 위한 실천을 위해 “장애의 존재를 인간 다양성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소수자의 연대 및 학문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포괄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상식 전날인 11월 9일(월)에는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된 기념 전시회 〈A Larger Mind, 우리가 지난쳐 온 그녀들의 공간〉 개막식이 진행됐다.

전시에서는 1세대 여성주의 작가로 유명한 윤선히 남의 신작 〈이화림 초상〉이 공개됐다. 〈이화림 초상〉은 국가 독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단신 이주’를 감행한 이화림(1905~1999)을 그리며 윤봉길 의거나 김구의 역사에 지워진 여성 독립운동가의 행적과 위상을 격상시켜 보여 주었다. 1세대 여성 사진작가인 박영숙은 〈미친년 프로젝트〉의 하나로 ‘몸은 갇혀 있으나 욕망에 의해 정치 없는 마음’을 달랠 길 없는 여성의 모습을 찍은 작품 등을 소개했다. 강애란의 〈여성 독립운동가 시리즈〉는 유관순, 남지현 등 역사 안에 묻혀 있던 근대 여성들의 삶을 한 권의 책 형태로 표현했다. 이밖에 정정엽, 천민정, 박성연 등 훌륭한 국내 여성 작가들이 함께한 이 전시는 11월 18일(수)까지 교내 ECC 대산갤러리(B3)에서 진행되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대성산업 회장 수석비서(이사) 전성희 동창

비서의 최고 덕목은 ‘하찮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진심 어린 마음’



“비서는 커피 심부름이나
하는 게 아니라
커피 심부름조차
마음을 다해 수행해야 합니다”

국내 최고령 현직 비서이자 최장수 비서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진 전성희(약학 65) 동창을 만나러 대성산업 본사가 있는 신도림 디큐브시티 건물로 들어섰다. 유난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건물 외관 때문인지, 아니면 78세 대선배를 만난다는 것 때문인지 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찰나, 짧은 커트 머리에 아담한 채구의 전 동창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전 동창의 밝은 표정과 낭랑한 목소리에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마법이 작용하는 듯 했다.

‘애 둘 딸린 40 넘은 중년의 비서?’

회장 직속 비서로서 많을 때는 하루에도 십수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수십 통의 전화 응대를 한다는 전 동창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다.

“처음에는 전화 속 내 목소리가 앗되게 들렸는지 미흔이라고 지레짐작을 했지요. 나중에 직접 와서 보고는 ‘애 둘 딸린 40 넘은 중년의 비서’ 라며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내 목소리가 지금도 낭랑한데 그땐 오죽했겠어요?”(웃음) ‘옹모단정한 아가씨’가 비서의 대명사이던 시절, 전 동창은 그런 통념을 깬 첫 주자였던 셈이다.

한국비서협회 회장(2010~11년)으로, 나사렛대학 비서행정학과(현 글로벌비서학과) 객원교수 및 비서학과가 개설된 여러 대학에서 강사(2009년~)로 활동하면서 후배와 제자들에게 그가 늘 강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실력’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함’이다. 전 동창은 비서계의 대모답게 비서로서 살아온 자신의 얘기를 중심으로 강연을 펼친다. 팔팔 끓는 물에 간이 딱 맞는 커피를 접대했던 이야기부터 상사의 비즈니스 파

트너로서 중요 업무를 처리했던 이야기까지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된 생생한 증언은 비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산지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커피를 맛있게 타는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하는 전 동창은 “비서는 커피 심부름이나 하는 게 아니라 커피 심부름조차 마음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상사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신념

인천여고를 수석으로 졸업한 전 동창은 엄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천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는 대신 4년 내내 모교 기숙사에서 지냈다. 모교의 추억을 더듬던 전 동창은 기숙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룸메이트와 교정을 거닐던 기억, 약사 면허 시험 준비에 매진했던 기억과 함께 대학 2학년 때부터 남편(전 서울대 철학과 심재룡 교수, 2004년 작고)과 손편지를 주고받던 기억 한 조각도 떠올렸다. 사실 심 교수와는 초등학교 5학년 같은 반 동창 사이로 연락이 끊겼다가 그가 불쑥 모교 기숙사를 찾아오면서 만남이 이어졌다. “기다리던 편지가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어렵던 시절이라 변변한 데이트도 못했으니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한국비서협회 정기총회(2010. 2.)

전 동창은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 장학금으로 유학길에 오른 남편을 따라 1969년 미국으로 떠났다. 그후 10년 동안 그곳에서 아이 둘을 낳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1979년 귀국했다. 박사학위를 딴 남편은 곧바로 서울대 시간강사로 일을 시작했지만, 네 식구 생활하기에는 빠듯했다.

전 동창은 세브란스 병원 약국의 약사 면접을 앞두고 남편의 권유로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당시에는 상무)의 비서로 출근하게 된다. 마침 그 자리가 공석이어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했던 터라 며칠 만 도와주기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어느덧 40여 년이 되었다. 김영대 회장은 남편 심 교수의 서울대 동기이자 동아리 절친이다.

“남편과도 잘 아는 사이인 데다 나이 많은 아줌마 비서였기에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며 “일은 못하는데 친구 부인이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부단히 신경쓰고 노력했다고 귀띔한다. 하지만 전 동창이 비서로서 통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하찮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김 회장은 전 동창의 책 『성공하는 CEO 뒤엔 명품 비서가 있다』의 추천사에서 “커피 심부름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업무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전천후 인재”라고 전 동창을 평했다.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가 가능하고, 한자를 잘 아는 세대이며,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훤히 째뚫고 있고, 궂은일 사소한 일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며, 방문객 접대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일당백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 칭찬이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실제로 경영인의 파트너로서 전 동창만큼 완벽

한 비서이자 보좌관도 없기 때문이다.

‘상사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는 전 동창의 신념은 그를 최고의 명품 비서로 만들었고, 전 동창이 보여준 상사에 대한 충성심은 상사가 전 동창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렇다고 상사에게 늘 좋은 말만 하는 비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 동창의 생각이다. 때론 ‘회사 내 야당’의 역할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 역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외국어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 열혈 학구파

40여 년을 한결같이 전 동창의 하루는 이른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그 시간에 봉천동 집을 나서면 6시에 회사 도착. 회사 건물 28층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간단히 몸 단장을 하고 11층 사무실로 내려오면 6시 45분. 그때부터 회사 업무에 시동을 건다. 회장님 자리에 결재할 서류를 갖다 놓고 보고할 메모를 챙긴 다음, 100~200건의 메일을 훑어보고 답장이 필요한 메일의 답장 초안을 작성해 7시 10분에 출근하는 회장님에게 보고한다. 그날의 일정 등 간단한 업무지시를 받고 7시 30분이 되면 일대일 과외(?)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다. 김 회장은 월수금, 전 동창은 화목으로 요일을 정해 놓았다.

회사가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1990년대부터 김 회장은 중국어 공부에 힘을 쏟았고, 전 동창에게도 공부할 기회를 주었다. 전 동창이 영어 메일을 번역해 줄 필요가 없을 만큼 영어는 이미 수준급이었던 김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노력하는 점이 전 동창과 비슷했다. 여러 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서경영전문협회 국제회의
'The 20th ASA Congree'에서 참석자들과 함께(2010. 9.)

라 회사들과의 제휴를 앞두고 있던 1979년부터 전 동창이 프랑스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원 없이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전 동창이 열혈 학구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자기계발을 독려한 김 회장의 배려 덕분이기도 하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하루 일과를 떠올리며 되뇌게 돼요. 사실 집에 가면 회사 일은 잊어버려야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전 동창은 천상 일벌레다. 퇴근 후에도 늘 대기 모드다. CEO를 보좌하는 비서라면 그것이 프로페셔널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꼼꼼하고 정확한 성품과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악바리 근성’은 비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 게다가 상사가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만의 팁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실력은 누가 봐도 특급 칭찬감이다. 지금이야 명함과 일정을 관리해 주는 앱이 나와 편해졌지만, 옛날에는 수기로 명함과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했다. 김 회장이 미팅이나 회의를 끝내면 전 동창에게 수십 장의 명함이 건네진다. 그럴 때면 요령껏 분야를 나눠 분류해둔다. 심지어 처음 회사를 찾아온 방문객의 명함을 받으면 명함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 상대의 특이사항을 살짝 적어놓고, 전화 메

모를 할 때는 상대가 화가 났었는지,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지까지 메모해 둔다. 그 사람이 회사의 중요 거래처가 될지도 모르니 다음번 만남에서는 먼저 성함을 묻고 아는 체를 하면 내심 고마워하는 것이 전해진다.

인터뷰 도중 힐끗 본 전 동창의 다이어리에는 여전히 남다른 노하우가 담긴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런 메모와 기록 하나하나가 비서 업무의 큰 자신이 된다. 전 동창은 그런 메모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

“회장님 눈에는 본인이 아무리 두루뭉술하게 말해도 정확히 명함을 찾아내는 제가 신기해 보였나 봐요. 게다가 나중에 다시 오는 손님들도 자기 이름을 기억해 내고 알아봐 주니 기분이 좋은 모양 이더라고요.” 전 동창의 세심함과 성실함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비서 본연의 업무는 사라지지 않을 것”

지금도 그렇지만, 의약계에서 모교 약대 파워는 예전부터 굉장히 커졌다. 약사라는 직업에 미련은 없었을까? “자랑 같지만, 당시에 이대 약대 출신이라고 하면 알아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약사 먼

허 딴 것이 아깝기도 해요. 언젠가 회장님이 나에게 약사로 일했으면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참 다행이다 싶어요. 약사로 일했다면 65세 정년을 채운 뒤 더는 일을 못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랜 세월 한 회사에 몸담고 있으며 동고동락했으니 회사 성장에 기여한 공이 크겠다는 말에 “제가 무슨 기여를 한 것은 아니고 뒤에서 차만 많이 탔지요”(웃음)라며 겸손해한다. 자신의 공을 앞세우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묵묵히 상사를 보좌하는 일, 그것이 곧 비서의 역할임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 손주뻘 되는 직원들과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밌다는 전 동창은 그들이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센스 있게 자리를 피해 준다. 고맙게도 직원들은 그런 전 동창을 잘 따르고 존경한다. 그들은 “전 이사님 그만두시면 큰일나요. 우리 회장님 비서실은 어떡해요”라며 회사에서 전 동창의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드러내 준다.

최근 4차산업혁명, AI를 통한 업무의 간편화 등 비서의 역할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전 동창은 비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까? ‘아무리 좋은 앱이나 프로그램이 나오더라도 비서라는 직업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전 동창은 “기계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지요. 비서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을 담아 상사를 모시고 고객을 응대하는 비서 본연의 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배화여대에서 열린 비서 특강이 끝난 뒤 학생들과 함께(2010.3)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경찰청 첫 여성안전기획관 조주은 동창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름도 생소한 경찰청 내 ‘여성안전기획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조주은(사학 90) 동창을 만나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지난해 경찰청 내에 신설된 여성안전기획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N번방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두 차례의 공고 끝에 최종 적임자로 발탁된 조주은 동창은 정년이 보장된 나급 공무원(경무관급)으로서 2019년 12월 24일(화) 첫 출근을 했다. 자칭 ‘경찰청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존재라는 그는 ‘깐깐’ 하기로 유명한 모교 여성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1999~2009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으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2009~2019년) 여성·가족·청소년 지원 업무를 맡았었다. 시민단체와 여가부 사이의 갈등 조정자로서 일했던 생생한 경험을 살려, 현재 여성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책임지는 이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묻자, “그동안 각 과로 흩어져 있던 여성안전과 관련된 경찰청 내부 조직을 이끌며 여성 대상 범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여성단체의 정책 제안과 시정 요구를 경청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여성학개론 수업

조 동창이 대학을 다닌 1986~89년은 엄혹한 시절이었다. 운동권 선배들이 많기로 소문난 사학과의 분위기상 대학생이라면『껍데기를 벗고서』『민중과 지식인』 등을 읽으며 학회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럼에도 주변에는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는 ‘취집(취업 대신 시집)’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서울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조 동창 역시, 학회 활동을 하면서도 졸업 후 사회의 경제적 주체로서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없었다.

대학 4학년 때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다. “조순경 교수님의 여성학개론 강의를 듣고 그때 처음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여성의 삶은 한마디로 한평생이 억압과 희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자각이 이어져 대학 졸업 후 우연히 듣게 된 ‘정치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단체에서 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남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운동권에서 벗어난다는데 조 동창은 역으로 졸업 후에야 진정한 운동권이 된 셈이었다. 지금의 남편도 그때 만났다. “나이도 학력도 이름도 몰랐지만, 서태지를 닮은 옛된 얼굴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토론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제가 참 많이 좋아했지요.” 당시를 회상하는 조 동창의 표정이 살짝 상기됐다.

남편은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노동자가 되었고, 집안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1994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곧바로 노동 운동을 하는 남편을 따라 울산으로 내려갔다.

“그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공장 노동자, 그것도 노동 운동을 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니 어느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겠어요.” 왜 아니었겠는가. 딸의 안정된 삶을 바라는 부모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딸 사이의 갈등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평범한 삶을 거부한 격랑의 시기를 넘어

남편은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소위원, 대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운동가로 성장해나갔다. 그러나 주야간 맞교대로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뒷바라지와 밤잠 못 자며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연년생의 육아는 녹록지 않았다. “남편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큰애는 유모차에 태우고 둘째는 들쳐업고 집 밖을 나가 읊씨년스럽고 낯선 울산 시내를 하염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느꼈던 암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조 동창은 그 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다. “목적지도 없고, 나를 구조해 줄 사람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혼자 아주 작은 쪽배를 타고 있는 기분이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활이 끝나면 나는 뭐가 되어 있을까 하는 우울함과 조급증에 시달렸어요.”

한계 상황에 다다를 무렵 듣게 된 남편의 얘기가 여성학 공부에 뛰어들게 된 자극제가 되었다. 남성 중심적인 공업도시 울산에서 원칙적이고 투쟁적인 노동 운동을 하는 남성들조차 2차를 가면 노래방 도우미 일명 ‘삐삐아줌마’를 부르며 노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얘기였다. 조 동창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전선에 선 남성들도 여성을 놀잊감으로 여기는 상황을 보면서 여성 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 식민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여성학 석사를 마치고 다시 울산에 와서 여성 운동에 헌신하기로 하고, 1998년 아이 둘을 데리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 무렵 남편은 정리해고 통지를 받으면서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또 아들은 아이들대로 어린이집에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는 아이로 자랐다. 평범을 거부한 조 동

창의 삶에서 그때가 가장 파고가 높은 격랑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리라. 그러면서도 실천하는 여성학 연구자로서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 나갔다.

공부 욕심이 생긴 조 동창은 석사만 마치려던 계획을 변경, 2003년 박사과정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 무렵 남편도 서울로 올라와 가족이 오랜 만에 합치게 됐다.

“왜 남성안전기획관은 없어요?”

조 동창이 여성안전기획관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영역은 “여성 피해자 보호와 선제적 범죄 예방”이다. 그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의 발생 원인, 성범죄 피해자의 90%가 여성인 이유는 “성별 권리 관계, 즉 사회구조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도 거시적으로는 여가부에서 남녀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을 펴는 것처럼 사회적 큰 틀에서 여성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미시적으로는 ‘여성이 조심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성들이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지 어려서부터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5대 국회 시절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스토킹 처벌법’이 최근 21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스토킹’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최근에야 다시 여야당 의원이 골고루 7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정부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조 동창은 “그동안 이 범죄는 관련 근거법이 없다 보니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명목하에 경범죄로 처벌되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었어요.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라며 “데이트 폭력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기 전에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심리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처럼 제대로 만들어진 법은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몇몇 사람들이 제게 왜 남성안전기획관은 없느냐, 이건 차별 아니냐고 묻기도 해요. 하지만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의 90% 이상에서 피해자가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



경찰청 ‘여성안전 정책자문단’ 위촉식(2020년 5월)

지는 여성의 안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라고 말하는 조 동창은 ‘성별간 전쟁’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문화가 지금 과도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한다.

“요즘 여성들은 진취적이고 독립심도 강해요. 그만큼 의식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성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여전히 과거 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던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남성들도 일부 있다 보니까 서로 빼걱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석과 동시에 그는 “남성들이 여성을 자기의 소유물이나 성적 놀잇감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인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 인생을 같이 걸어갈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조 동창의 일목요연한 설명을 듣다 보니 오랫동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일한 경험과 여가부에서 여성단체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정책보좌관의 경험이 실제로 정책과 법을 수행하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서 빛이 발함을 확인하게 된다.

위아래를 잘 살피고 존중하는 ‘덕장’이 되고 싶은 바람

경찰청 업무와 관련된 목표 외에 조 동창 개인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외부 전문가를 국가 공무원으로 뽑을 때 정년을 보장하는 경우는 제가 최초라고 들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경찰조직에서 이런 귀한 자리에 앉게 된 저로서는 자리에 걸맞은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커요. 그래서 늘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새롭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을 이끌어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정년까지 남은 7년 동안 위아래를 잘 살피고 존중하는 ‘덕장’이 되는 것입니다.”

와인 애호가이기도 한 조 동창은 부하 직원들을 향한 애정도 남달라서 다양한 와인을 소개하고 선물하면서 와인에 얹힌 지식도 전해 주려 애쓴다. 또한 직원들에게 문화예술적으로 전시나 음악회 등을 경험할 기회도 자주 마련해 준다.

경찰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단언하는 조 동창은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2, 3년 뒤 이 자리가 안정되면 퇴근 후에 그동안 미뤄뒀던 집필 활동에도 힘쓸 생각이라며 개인적인 플랜도 내비쳤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늘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되돌아보고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 동창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시민정치포럼 주최, 진선미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2018년 8월)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중앙아시아 K국 김도르가 동창

생명의 위기에 찾아온 주님의 말씀

메림 20주년 기념행사

2020년 10월 3일(토)에 Zoom을 통해 메림 치과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2000년 초 수련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메림 치과를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 그동안 메림이 성장하도록 지원해 준 미국과 한국의 K팀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 그리고 K국 의료인 평생교육대학의 추바코프 총장, K국 치협 회장 등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메림이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DSI와 GDA를 통해 매해 단기 사역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셀 수 없을 정도이고 1년 이상 장단기로 섬긴 사역자들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메림을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은 학장으로, 교수로, 치과계의 지도자들로 K국 치과계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추바코프 총장이나 처음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칼바예프 협회장도 지금은 진심으로 메림이 이곳 치과계에 기여한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메림을 통해 이 나라뿐 아니라 넓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치과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번의 혁명

메림 기념식 다음 날은 K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로 인해 반정부 시위가 그 이후 며칠에 걸쳐서 이어졌고 그 결과 대통령이 축출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어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2차로 크게 전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20주년 행사가 끝난 후 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는 미열만 있었는데 주말에 코로나19 확진 후 둘째 주부터는 폐렴으로 진행되어 심한 기침으로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만일 폐렴이 더 심하게 진행되어 산소포화도가 90 이하가 되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팀의 의사들이 걱정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어서 자기 몸의 면역으로 이겨내야 하고 그 진행이 예측 불가하여 의료 체계가 취약한 이 나라에서 대

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병세가 한창 심할 때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후송의 가능성도 찾아보았지만 그 비용이 20만 달러 가까이 되고 진행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기침으로 잠 못 이루며 주님께 간구할 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2장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솟아오르는 기침을 억누르며 한 호흡 한 호흡을 힘겹게 이어가는 며칠 동안 호흡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시편의 말씀이 새로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이 새로이 생명의 연장시켜 주시고 이곳에서 계속 섬길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일에 집중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과의 재정적 독립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영적인 독립은 아직 길이 멀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가족 소식

주님께서는 제 삶에 몇 번의 생명의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뇌혈관이 막혀 건강의 위기가 왔고, 강도의 위기를 겪었고, 교통사고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각 위기를 통해 주님은 참 생명의 길, 진정한 삶의 목표를 확인해 주셔서 저의 삶이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의 어려움 중 기도와 간구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 · 도 · 해 · 주 · 세 · 요

1. 치과 직원들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2. K국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소서.
3. 철결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온 가족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소서.
4. 치과 직원들을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과를 운영함을 축복해 주소서.
5. 도르가가 인문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소서.
6. T가정 교회가 주일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K국 사람 중 첫 열매인 이들의 수가 늘어가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일군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코로나19로 앓고 있던 중에도 아내 도르가는 건강하게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7월 초에 가볍게 앓으면서 항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내의 건강에 대해 이번처럼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는 일반 외과에서 1년 이상 일하며 수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부르심의 확신 위에서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의영이는 최근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대학원 진학과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글 · 문누가(김도르가(간호 88) 동창의 남편)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계재

조형예술대학

회장 신영선(장미 88)

제12회 ‘비전이화미술인’ 전 온라인 개최

조형예술대학 동창회(이하 녹미회)는 2020년 9월 28일(월) 제12회 '비전이화미술인' 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비전이화미술인' 전은 녹미회에서 매년 예비 졸업생들의 졸업 작품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전공 별로 작품을 심사 선정하고, 선배가 후배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여 미래의 예술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의미 깊은 전시이다. 작품이 전시된 작가에게는 큰 영광이며 동시에 후배들에게 학업의 열정을 복돋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하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처음으로 ‘비전이화미술인’ 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전시에 많은 선호배동창, 교수, 재학생, 지인들이 관심을 갖고 사이트를 방문해 주어 오프닝 첫날 서버가 다운되는 성황을 이루었다.

제12회 ‘비전이화미술인’ 전의 초대 작가로는 김은채(영상디자인 20)·김지수(시각디자인 20)·김지영(섬예 20)·문해림(산업디자인 20)·박정언(도예 20)·박정은(조소 20)·안효진(패션디자인 20)·전미래(공간디자인 20)·허수정(동양 20)·황정현

(서양 20) 동창 등 10명이 선정되었다(가나다순).

2020년 녹미회 선후배들은 예기치 않았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선후배 간에 많은 정을 쌓을 수 있었다.

세계로 향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의
비전이화미술인 후배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술,
디자인계의 중추적 리더로서 성장해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전이화미술인’ 전은 <http://visionewha.co.kr>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찍으면 더욱 간편하게 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다.



조형예술대학의 비전이화미술인전 포스터

의과대학

회장 __ 심 현(의학 80)

서울시 청소년 쉼터 업무협약식 및 대표자 간담회

2020년 11월 10일(화)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봉우리에서 서울시 청소년 쉼터 업무협약식 및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심현 회장, 성시열(의학 81) 수석부회장, 피상순(의학 84) 총무이사, 김태경(의학 84) 사업이사, 김성희(의학 87) 사업이사, 전영미(의학 82) 무임소이사, 송혜경(의학 97) 정보통신이사, 조지희(의학 88) 지역이사 등 총 8명의 동창회 임원들과 윤광수 소장을 비롯한 서울시 청소년 쉼터 15곳의 소장들이 참석하였다.

이화의대동창회는 의료봉사는 물론 사회적인 기여를 높여나가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4월 이화의료봉사회를 발족하고, 그 첫 사업으로 청소년 쉼터 후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협약을 맺은 여러 쉼터의 청소년들에게 건강검진, 독감예방 접종, 임상심리검사 등 각종 의료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업무 협약을 지속했던 청소년 쉼터 15곳과의 갱신 협약과 신규로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과 추가 업무 협약식을 가져 앞으로 서울 시내 총 20곳의 쉼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큰 기여는 아니지만 우리 이화의대 동창회가 여성의료전문가단체로서, 쉼터를 매개로 고단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다독일 수 있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가을 야유회는 ‘코로나 블루 극복 이벤트’로 대체하여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일상을 홈페이지에서 동창들과 함께 공유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이벤트에 많

은 동창들이 참여해 주었다.

‘코로나 블루 극복 이벤트’ 시상은 글을 올린 순서와 조회 수, 댓글 수, 코로나19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1등 유영희(의학 75) 동창, 2등 정미라(의학 83) 동창, 3등은 공동 수상으로 박혜영(의학 89)·박성은(의학 89)·전효주(의학 19) 동창이 수상하였다. 이화의대동창회 집행부는 앞으로의 모든 행사도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발맞춰 유튜브나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모든 동창들이 동창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능을 강화하고 언제든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11월 19일(목) 달개비에서 심현 회장, 윤석완(의학 76) 전 동창회장, 오혜숙(의학 78) 전 동창회장, 이남희(의학 79) 전 동창회장(비대면위임), 이지희(의학 84) 전 학장(비대면위임), 피상순 총무이사, 김태경 사업이사, 이명화(의학 84) 재무이사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 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충분한 심사 후에 만장일치로 오영옥(의학 72)·우경숙(의학 72) 동창의 추천을 받은 이영주(의학 72) 동창에게 제8대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청소년 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각종 의료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 의과대학 동창회



박에스더심사위원회

향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2021년3월 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영주 동창은 이화의대 부속병원 마취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1977년 마취과 전문의가 된 후 1977년 이화의대 마취과학 교실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교직 생활을 시작하여 7년간 이대동대문 병원에 근무하였다. 1983년부터 연세의대 부속병원 마취과에 10년간 근무했고 1994년 아주의대 부속병원 마취과에서 20년간 외과계 중환자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이 동창은 정년퇴임 후 모교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5년간 월급을 반납하여 1억 8,000만 원을 모아 모교에 기증한 바 있다. 이 기금은 젊은 교수들의 미국 연수 체재비로 제공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영주 동창은 이화의료원의 새 병원인 이대서울병원 건립에 20억을 기부하여 모교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영주 동창은 2020년 6월 24일(수)부터는 4년 임기의 이화여대법인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다. 평생 우리나라 중환자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헌신한 이 동창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제8대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 상’ 추대된

이영주 동창에게 축하를 드리며 많은 동창들의 축하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약학대학

회장__ 김용재(약학 82)

정기 임원 및 기대표회

2020년 11월 11일(수) 롯데월드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정기 임원 및 기대표회를 개최하였다. 10월 정기총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날 총회 안건인 회계 및 감사 보고와 신년 계획안을 보고하였고 주 홍장학회, 약학연구소 후원회의 결산보고도 있었다.

이 자리에는 임원과 기 대표를 포함하여 67명이 참석했으며 졸업 50주년 된 21회 선배들의 기념 동영상을 보며 학창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정의 가을 단풍 포토존을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또한 이강희(약학 66) 동창의 니트상의 선물과 정숙희(약학 76) 동창의 멀티비타민, 이해경(약학 83) 동창의 비타민팩과 필링젤의 선물로 더욱 풍성한 만남이 되었다.



정기 임원 및 기대표회를 개최한 약학대학 동창회

빛나는 이화인

제6회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빛나는 이화인' 상은 사회 각 분야(국내외의 과학, 경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언론 등)에서 이화 정신에 입각한 선도적 행동으로 타의 모범을 보이고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한 동창들을 선정하여, 그 공을 치하함과 동시에 그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수상자는 모교 창립 135주년 기념일인 2021년 5월 31일(월) '동창의 날' 행사에서 시상합니다. 아래 시상 요강을 참조하여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 내용 상패와 증서

■ 수상 후보 자격 국내외의 과학, 경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이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뛰어난 업적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2021년 현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본 회의 회원

■ 추천인 자격 각 과, 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 및 해외 지회장
전문직 동창클럽 회장
동창 100인(연명 날인)

■ 구비 서류 후보자 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1장 포함)

추천 사유 및 후보자 업적 사항 진술서 1통(본회 소정 양식)
후보자 업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

■ 추천서 접수 접수마감 : 2021년 3월 2일(화)

(우편 접수는 3월 2일(화)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우 03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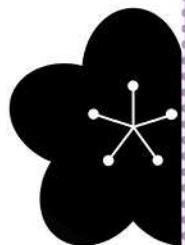
■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요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 3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불어불문학과

회장__유혜영(78)

아미회 임원 모임 가져

불어불문학과 동창 모임인 '아미회' 임원들은 2020년 11월 25일(수) 모임을 가졌다. 오랫동안 동창 모임을 갖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면서, '이화인의 밤'을 개최하지 못하는 대신 후원 티켓을 판매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불어불문학과 동창모임 '아미회' 임원들

사회학과

회장__신혜령(75)

신·구 회장 이·취임식

사회학과 동창회는 2020년 7월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혜령 동창을 제21대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임기는 2020년 7월에서 2022년 7월까지 2년이다. 부회장 엄명숙(83)·이재완(84)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가진 사회학과 동창회

동창과 총무 강미영(87) 동창은 유임되었고, 회계 강혜영(84) 동창은 새로 선임되었다. 고문단은 공정자(62)·김영복(63)·표경희(66)·양옥남(67)·박춘호(70)·이근원(71)·윤명근(72)·최영희(73)·김자혜(74)·김금래(75) 동창이다. 사회학과 동창회는 격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사회복지학과

회장__한인영(72)

강복순 동창 1억 원 장학금 기탁

2020년 8월 13일(목) 강복순(62) 동창이 사회복지학과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쾌척하였다. 최유미 대외협력처장은 강복순 동창이 오랫동안 저금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강 동창은 이 자리에서 “이화에서 교육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왔기에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



1억 원 장학금을 기탁한 강복순 동창

운 학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복순 동창은 소속 교회의 권사직을 맡아 저개발국가의 신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며 해외 선교도 후원하고 있다. 한인영 회장은 전 회장들과 함께 축하 모임을 개최하였다.

서양화과

회장 __ 채정수(83)

제46회 이서전에 85명의 동창 참여

2020년 9월 16일(수)부터 21일(월)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서양화과 동문전인 이서전을 개최하였다. 2년마다 열리는 이서전은 올해로 46회를 맞이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1회 졸업생인 신금례(49) 동창을 포함한 85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이서전에 참여한 동창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졸업연도 순). 신금례(49), 이경순(50), 노영실(59), 천연순(62), 최구자(65), 곽연(67), 김영안(68),



제46회 이서전을 개최한 서양화과 동창들

이서희(68), 강승애(72), 이미혜(72), 이정주(72), 배경숙(75), 유기은(75), 이종명(75), 박운주(76), 김효정(77), 이나경(77), 김숙희(78), 박혜경(78), 조기주(79), 공은희(80), 지연희(81), 차명임(82), 강태화(83), 김정효(83), 박향림(83), 채정수(83), 김미옥(84), 이경희(84), 김홍식(85), 박인옥(85), 신미선(85), 우정하(85), 이경희(85) 정경미(85), 현경원(85), 김애란(86), 김지선(86), 박영은(86), 박혜성(86), 백다임(86), 백승숙(86), 변해정(86), 신명화(86), 윤 경(86), 차승민(86), 강선영(87), 박신숙(87), 서영임(87), 송현미(87), 심 연(87), 장혜숙(87), 정두옥(87), 김현희(88), 윤경숙(88), 황명희(88), 금사영(89), 김선주(89), 김영지(89), 박가나(89), 박은덕(89), 박현우(89), 양수균(89), 이귀영(89), 하상희(89), 한규호(89), 한여옥(89), 김길숙(90), 나미경(90), 박효실(90), 장혜원(90), 조강신(90), 조수경(90), 박형주(91), 안혜리(91), 김효선(92), 김희진(92), 최문선(92), 이해정(93), 정선주(93), 조상은(93), 허정원(93), 남묘진(98), 박혜성(98), 이고운(02).

조소과

회장 __ 박신정(85)

온라인 전시로 대체된 제37회 이화조각회 전시

2020년 제37회 이화조각회 전시 ‘Turning Point’는 2020년 11월 2일(월)부터 12월 31일(목) 까지 유튜브 채널(K-contemporary sculpture of EWHA)을 통해 전시되었다. 한편 조소과 작가들의 모임 ‘조각그룹 비’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11월 9일(월)부터 12월 12일(토)까지 수하담 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하였다.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제재

뉴욕 지회

회장__김현우(서양 83)

2020년도 장학생 수혜자 선정

대뉴욕지구 이화동창회 장학위원회(안미상(약학 66), 이정화(영문 70), 유덕항(약학 71), 김현우(서양 82), 박영숙(경영 86))는 신중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대학생 Claire Park, Jun Seo 씨와 대학원생 최지현(성약 18) 동창을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하였다. 이화동창회 장학금 수표는 각 대학의 이름으로 지급되며 학비에만 적용된다.

이화동창회 장학금 조성에 관심과 헌신을 보여 준 뉴욕 지회의 동창, 이사, 후원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2020년도 장학금 수혜자들에게도 진심어린 축하를 보낸다.

이화국제재단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이화 동창들이 모교를 돋기 위해 결성하였고, 미국 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후원 기관이다. 2020년 2월 기



영상 총회를 위한 그룹 댄스를 연습 중인 뉴욕 지회

준, 150여 개의 장학기금 및 각종 기금 그리고 31개의 동창회 지회 기금 등을 통해 모교를 후원하고 있다. 1970년 이래 지난 50년간 총 1,708만 9,000달러의 기금 모금을 하였고, 이화국제재단이 모교로 보낸 지원금은 1,450만 5,000달러에 이른다(자료 제공: 이화국제재단). 뉴욕 지회는 이화국제재단 기금 조성 마련을 위해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화국제재단 50주년을 맞아 Hope Fund 조성을 위해 5,000달러를 후원했다.

유례 없는 팬데믹으로 2020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뉴욕 지회 동창들은 이화 동창들에게 희망찬 기운을 돌우어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즐거운 그룹 댄스를 선보이기로 하고 댄스 연습에 매진했다. 여름 끝 무렵의 화창한 날씨 속에 선배와 후배가 한데 어우러져 숨겨놓은 댄스 실력을 선보이기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뉴욕 지회의 '희망 댄스'가 북미주지회연합회의 동창들에게 즐거운 에너지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뉴질랜드 지회

회장__윤희자(교공 79)

두 번의 락다운 사이의 짧은 휴식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2020



공설화 동창의 집에서 동창회 모임을 가진 뉴질랜드 지회

년,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달리 두 번의 락다운을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락다운 사이의 짧은 기간에 부회장인 공설화(영문 74) 동창의 집에서 동창회를 한 번 열었다. 예상과 달리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다시 레벨1로 내려갔기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송년 모임을 하며 2020년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디트로이트 지회

회장 __ 신인옥(컴공 85)

공원에서 번개팅으로 이루어진 동창 모임
아름다운 미시간의 가을이 한창이었던 10월에, 팬데믹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콘셉트의 동창 모임을 가졌다. 번개팅으로 준비된 이번 모임은, 공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각자 개인 방역에 힘쓰면서도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임원진이 점심과 간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형식의 번개팅은, 대선배들과 미시간 대학에 유학 온 뜻뜻한 졸업생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인 자리가 되었다. 2021년도 북미주지연합회 총회를 위해 단합된 힘을 위한 결의도 함으로써 다시금 ‘이화인’임을 느끼며 다들 고무된 모습으로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디트로이트 지회는 2020년 11월 6일(금) 댈러스

에서의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과 동시에 북미주지연합회 기를 인수받았다. 이로써 2021년도 북미주지연합회 총회 개최지로 모든 행사 관련 업무 인수인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

디트로이트 지회 동창들은 내년 북미주지연합회 총회 개최지로서 행사 준비에 힘을 모으고 있다. 장학금 및 총회 준비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많은 동창들이 도네이션한 물품을 지역 사회에서 온라인 판매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후원금 모금도 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회보 발간을 위한 편집 작업과 광고 판매 및 후원도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총회 전 진행되는 여행지 선정을 위하여 미시간 북부의 여러 지역을 답사했으며 호텔 선정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의 사태가 해결되어 대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만일에 대비한 영상 총회 준비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원에서 번개팅 모임으로 미시간의 가을을 만끽한 디트로이트 지회

베이징 지회

회장 __ 강미경(생미 88)

9개월 만에 어렵게 재개된 모임

2020년 10월 14일(수) 1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번 정기 모

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월 신년 정기 모임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창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베이징시 차오양구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엄격한 방역 관리 및 외국인 비자 제한 등으로 설 연휴 기간 한국을 방문했던 동창들이 한국에 발이 묶인 채 베이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정기 모임이 잠시 중단되었다. 9월부터 방역 정책의 완화로 일부 동창들이 8~9월 전세기 등을 통해 베이징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모임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날 어렵게 모인 베이징 지회 동창들은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동창들도 베이징에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타지에서 서로에게 베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베이징 지회가 되기를 바라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유튜브에 올린 북가주 지회의 장기 자랑 비디오 영상

의 정원, 공원 등에 모여서 율동 연습을 하였고, 동창들이 준비해 온 음식으로 피크닉을 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이렇게 열심히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린 북가주 지회의 텔런트쇼 비디오는 3,291 개의 검색을 받았고, 405개의 ‘좋아요’를 받아 인기상을 획득했다. 인기상을 받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세계에 퍼져 있는 가족, 지인들의 협조를 받아 한표 한표 얻어가는 소중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이화는 하나다’라는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_이영완(정외 81)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에서 인기상 획득
북가주 지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줌(Zoom)을 통한 월례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매월 20~30명의 동창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목)부터 개최된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명의 동창이 총회 Banquet에 참석하였고, 10명의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10명의 동창이 교가 제창에, 6명의 동창이 〈Heal the World〉 합창에 참여하였다.

영상 총회 텔런트쇼를 위해 20여 명의 동창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교회 잔디밭, 동창 집

워싱턴DC 지회

회장__서혜경(정외 90)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운동 모임

워싱턴DC 지회는 2020년 9월 16일(수)부터 11



온라인 운동 모임을 진행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월 18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10주 동안 온라인 운동 모임을 진행하였다. 서로 안부를 나누고, 체조나 요가 동작을 활용한 스트레칭을 함께하면서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주중에 쌓인 피로도 함께 풀었다. 이 시간을 통해 배운 체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11월 6일(금)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의 텔런트쇼에 참가하였다.

10월 18일(일)에는 새 동창 환영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18명의 동창들이 참석했다. 권수미(문정 86) 총무의 사회와 이상명(커미부 02) 문화부장의 게임 진행으로 새 동창들을 환영하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 즐겁고 귀한 시간을 가졌다. 11월 16일(월)에는 온라인 대화방을 오픈하여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었으며, 향후 정기적 대화방을 계획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 워싱턴DC 지회는 다양한 온라인 모임을 시도하여 워싱턴DC 지역 동창들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머물고 있는 동창들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지회

회장__고정희(장미 74)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진행

일본 지회에서는 동창들이 속해 있는 교회나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등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돋고 있다. 방역에 힘쓰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학생 돋기, 아프리카 잠비아 학생 돋기와 코리아타운의 청소 봉사, 자선 골프 모임, 만·엔 기부 등 산모임 등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화 동창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



사랑의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한 일본 지회 동창들

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토론토 지회

회장__박현애(사회과교육 81)

텔런트쇼에서 대상 수상의 기쁨 누려

2020년 10월 17일(토) 동창 선교사를 돋는 Fundrasing 가을 하이킹 행사를 가졌다. 동창들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오색 단풍이 어우러진 숲길을 만끽하며 걸었다.

11월 5일(목)부터 8일(일)까지 열린 북미주지회 연합회 영상 총회의 텔런트쇼 부문에서 토론토 지회가 출품한 작품이 모교 총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에서 대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대상으로 받은 상금은 많은 동창들이 수고하여 얻어진 귀한 금액이기에 장학금 견립의 Seed Money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29일(일)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연말 총회 및 파티를 줌(Zoom)으로 열었다. 폭풍우와 눈보라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어 내는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Evergreen)’를 파티 주제로 정하고, 동창들은 푸른 나무를 아름답고 다채롭게 장식하는 의미로 빨강·노랑·녹색·흰색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의상으



줌으로 진행된 연말 파티에 참석한 토론토 지회 동창들

로 입고 줌으로 파티에 참석하였다.

1부에서는 1년 동안의 동창회 활동 상황 보고와 내년도 차기 회장 선거를 하였고, 2부에서는 각자 준비한 잔으로 축배를 들고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 텔런트쇼 대상 작품을 감상하였다. 3부에서는 흥겨운 음악으로 댄스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모두 즐거운 가운데 끝마쳤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동창들의 지혜와 힘을 합쳐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고 성공리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린다.

파리 지회

회장__윤애영(서양 88)

소규모 인원으로 추석 모임 열고 아쉬움 달래

프랑스 전체 봉쇄령이 내려져 재불이화 동창회의 가장 중요한 연중 행사 중 하나인 봄 야유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가을 추석 모임을 고대하던 차에 다행히 10월에는 봉쇄령이 일시적으로 풀려 10명 이하의 소모임은 허락이 되었으므로, 10월 1일(목) 파리 15구에 위치한 고향식당에서 조촐한 추석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매년 추석 때면 대선배부터 후배까지 함께 모여 멀리 외국에서 고향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을 달래며 정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는 없었다. 고령으로 홀로 계신 선배와 전임 동창회장 그리고 현 임원진 등으로 명단을 꾸려 이충석(심리 56)·이병주(불문 62)·이종란(약학 71)·송미영(불문 75)·함미연(불문 81)·윤애영·박지은(가관 96)·안정화(건축 06)·김윤정(국제 07) 동창이 참석하여 점심식사를 함께하였다. 함미연 전 지회장이 직접 정성스레 만든 송편을 나누어 먹고 이화 교가도 부르는 등 그간 동창회를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며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이날은 이충석 동창의 90세 생신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종식되어 따뜻한 햇살 아래 모든 재불 이화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을 애타게 기다려 본다.



소규모 인원으로 조촐하게 추석 모임을 가진 파리 지회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__박윤옥(간호 75)

아내 위한 요리를 책자로 엮어 동창들에게 배포

2020년 11월 초에 온라인으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의 Virtual Choir를 위해 필라델피아 지회 합창단은 7월부터 교가와 <Heal the



줌(Zoom)을 통해 일상을 나누고 있는 필라델피아 지회

World> 곡을 혼신을 다해 연습하였다. 신청자가 적은 탓에 다른 지회 소속의 친언니와 사촌여동생을 영입하는 노력을 통해 필라델피아 지회는 여섯 명의 동창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연습을 통해 모교의 교가에 매우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걸 마음으로 음미하며 노래할 수 있어 좋았다.

김영애(국문 62) 동창의 부군인 전희근(방사선 전문의 은퇴) 씨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팬데믹 기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매끼마다 다양한 요리를 하였는데, 그 중 100여 가지의 음식을 사진 찍고 짤막한 설명을 붙여 간단한 요리 책자를 만들어 동창들에게 보내 주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동창회는 할 수 없어 매 월 줌(Zoom)으로 동창회를 하는데 10여 명 전후의 동창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루 속히 이 어려운 기간이 지나 함께 만나서 소소한 얘기를 나누는 일상의 동창회로 모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 모임을 진행하여 원귀정 동창이 제1대 지회장, 조은경(간호 88) 동창이 제1대 고문으로 선출되었고 기타 임원진들도 결정되었다. 지회 회칙을 의결하며 모교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모교 장학금이나 지역 사회 후원금 등 회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봉사의 참 의미를 실현하며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의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창들은 6월에 처음 모임을 시작한 이후 지회로 정식 승인되기까지 격월로 활발하게 정기 총회 및 지역 모임을 가졌다. 이번 동창회 발족으로 63학번부터 13학번까지 다양한 세대의 동창들이 모여 서로의 균황을 교환하며 타국에서도 이화인의 궁지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동창들은 호치민 지회가 앞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베트남 지역 사회와 한·베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동창 모임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2021년 1월에 호치민 지회는 신년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다양한 연령의 동창들이 참여하는 이화 만의 뜻 깊은 첫 신년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

호치민 지회

회장__원귀정(영문 89)

새롭게 발족한 호치민 지회

2020년 6월, 18명의 동창이 모여 호치민 지회를 시작하는 첫 만남을 가졌다. 그 후 9월 22일(화)에



다양한 세대의 동창들이 모여 동창회를 발족한 호치민 지회

홍콩 지회

회장__최명성(교공 76)

새로운 회장단에게 인수인계

최명성 지회장을 비롯한 홍콩 지회 동창들은 10월 11일(일)에 구룡에 있는 Pacific Club에서 모임을 가졌다. 홍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인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동창들은 테이블을 나누어 앉으며 결속했다. 이날 오찬은 정도경(사복 81) 전임 회장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또한 11월 둘째 주에는 2021년부터 홍콩 지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단인 한유미(보교 90) 회장, 최성희(정외 87) 부회장, 노정아(경영 04) 총무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했다.



빅토리아 하버를 배경으로 10월 동창회에 참석한 홍콩 지회 동창들

휴스턴 지회

회장__구희경(사회과교육 86)

대면 모임 대신 영상으로 특강 진행

휴스턴 지회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의 여름 휴가 기간을 마치고 9월에 영상으로 동창 모임을 재개했다. 모교에서 국문과를 졸업하고, 국어

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타 대학 조교수로 교편을 잡았던 이해용(국문 01) 동창이 오용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한국어 호칭어 및 지칭어’를 주제로 특강을 해주었다.

10월에는 구희경 동창이 미국의 학제, 대학 입시, 중고등학교 Timeline, 학년별 Recommendation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중고등학생 자녀뿐 아니라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동창들도 참석했기에, 부모 입장에서 알고 지도하면 도움이 될 만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

11월 모임에서는 2020년 하반기 회계 보고와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에 관한 소식을 나누었다. 휴스턴 지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장학 사업과 지역 봉사 활동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이화국제재단 휴스턴 지회 장학금 기존 구좌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기금을 더해 모교 후배들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휴스턴 지회 동창들의 참여와 도움 덕분에 가능한 일들이다. 휴스턴 지회는 규모 면에서는 작은 편에 속하지만 선후배간 유대와 상호 존중은 으뜸이라고 자부한다. 선배들이 돌멩이도 치우고 잡초도 뽑으며 열어 준 길을 후배들이 열심히 닦고 가꾸면서 뒤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어 호칭어 및 지칭어’ 특강에 참여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

정효정(영문 68) 동창

재미시인협회 시인상 수상자로 정효정 동창이 선정됐다. 장효정 동창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미시인협회 회장 역임시 30여 년 된 협회가 둘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공헌했다. 또한 꾸준한 작품 활동과 협회를 위해 이사로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장효정 동창은 미주문학상, 가산문학상, 해외문학상, 허난설향상, 현대문학사조상, 해외동포문학 우수상, 윤동주서시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정효정 동창

김순이(국문 69) 동창

시인 김순이 동창이 제20회 제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020년 11월 30일(월)



김순이 동창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또한 김순이 동창은 12월 2일(수) 제9대 제주문화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선거를 통해 신임 원장이 선출된 것은 제주문화원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김순이 동창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제주문인협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5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제주 문화계에 헌신해 왔다.



강승애 동창

강승애(서양 72) 동창

2020년 9월 24일(목)부터 11월 19일(목)까지 약 2개월간 해피타임 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신필주(국문 73) 동창

신필주 동창이 (사)한국문인협회 울산광역시 지회에서 주최한 ‘제20회 울산문학상’ 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20년 12월 16일(수)

고(故) 이효재(문과 45입학) 동창

한국 여성운동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모교 명예교수 이효재 동창이 향년 96세의 나이로 2020년 10월 4일(일) 별세했다. 이효재 동창은 1977년 국내 최초의 여성학과 설치를 주도하는 등 한국 상황에 맞는 여성학의 도입과 연구에 힘썼으며, 한국여성민우회 초대 회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등을 지내며 초창기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호주제 폐지와 여성 할당제 도입, 부모



성 같이 쓰기 선언 등에 기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결성에 참여하고 1991년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했다. 여성계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권인숙 민주당 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80명이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여성장으로 고인을 배웅하였다.

울산광역시 중구 다움호텔에서 열렸다. 이 상은 울산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울산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한다. 신철주 동창은 울산문인협회에 40년 동안 적을 두고 있다.



신필주 동창

장영란(섬예 77) 동창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장영란 동창이 제47회 (사)한국공예가협회 정기전에서 제31회 목양 공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현대공예의 선구자인 목양 박성삼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1988년부터 매년 공예 발전에 공로가 큰 작가 중 한 사람을 선발해 시상한다. 장영란 동창은 역대 처음으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수상이 확정되었으며 최연소 수상자이다.



장영란 동창

한명옥(무용 79) 동창

2020년 11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서울 포스

트 극장에서 ‘한명옥 작품전’ 공연으로 <드림무용단 우리 춤의 여정-전통의 재발견>을 개최하였다. 한명옥 동창은 이 공연에서 총괄 안무 및 지도를 맡았다. 한 동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모교 무용과 동창 회장이다.



한명옥 동창

이선희(조소 81) 동창

2020년 11월 7일(토)부터 12월 20일(일)까지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해동문화예술촌 아레아 갤러리에서 제11회 초대 개인전 ‘카오스, 관계의 알고리즘’ 전을 가졌다.



이선희 동창

나효신(작곡 82) 동창

벨기에의 랜트로 뮤직 출판사에서 나효신 동창의 가야금 독주곡 8개를 두 권으로 묶어 2020년 10월 출판했다. 또한 미국의 저작권협회 ASCAP(American Society



나효신 동창

이화챔버오케스트라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

2020년 11월 2일(월) 영산아트홀에서 이화챔버오케스트라가 창단 20주년 기념 제21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김기순(기악 66) 명예교수의 지휘로 김정미(관현 90)·배종선(관현 90)·김내리(관현 93)·김문정(관현 94)·이상은(관현 94)·박정민(관현 00)·최현정(관현 00)·송영(관현 01)·김지혜(관현 05)·문선희(관현 11)·윤소정(관현 13) 단원의 연주가 어우러졌다.

‘이화 음악’의 뿌리를 이어가고자 모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동창들로 구성된 이화챔버오케스트라는 2000년 5월 모교 김영의 홀에서의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에서 매년 활동을 많이 한 작곡가들에게 ASCAP PLUS AWARD를 주는데, 나효신 동창은 이 상을 23년째 매년 받고 있다.

강애란(서양 83) 동창

2020년 9월 17일(목)부터 11월 14일(토)까지 갤러리 시몬에서 초대전으로 개인전 ‘숙고의 서재’를 열었다. 강애란 동창은 책의 모형 내부에 LED를 장착시킨 라이팅 북(Lighting Book)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시간과 공간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숙고의 서재’에서는 페미니즘, 그리고 시대에 대한 고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을 들었다.



강애란 동창

김용복(무용 85) 동창

김용복 동창이 경북도립무용단 제2대 상임안무자로 위촉되었다. 김 동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이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제 제7-2호 정읍농악(설장고) 전수자다. 김용복 동



김용복 동창

창은 2013년 한국춤협회 주관 제26회 한국무용제 소극장 부문에서 ‘동정’으로 우수작품상, 2015년 한국무용협회 주관 제36회 서울무용제 경연 부분에서 ‘서천꽃길’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영희(약학 85) 동창

아주대학병원 약제팀장으로 재직 중인 이영희 동창이 2020년 11월 16일(월) 한국병원약사회 제26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영희 동창

이윤실(약학 85) 동창

2020년 11월 18일(수) 열린 약의 날 수상식에서 이윤실 동창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동창은 모교 약대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윤실 동창

이정숙(동양 85) 동창

이정숙 동창이 2020년 11월 18일(수)부터 25일(수)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2020 목우미술축전 MWAF’ 부스 개인전에 참가했다.



이정숙 동창

현대무용단 탐 창단 40주년 기념 작품 전시회

혁신적인 안무와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한국 현대무용계를 이끌어온 현대무용단-탐(예술감독: 조은미(무용 78·모교 교수)이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이하였다.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작품 시리즈를 기획한 현대무용단-탐은 2020년 12월 15일(화)부터 21일(월)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Gallery MHK에서 ‘현대무용단 40주년 기념 시리즈Ⅲ 작품 사진전’을 선보였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무용단의 발자취를 기록한 300여 점의 사진과 영상을 간추려 구성하였다.



임서령(동양 85) 동창

목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임서령 동창이 2020년 10월 7일(수)부터 13일(화)까지 백송화랑에서 제22회 춘추미술상 수상기념전 ‘고택연가(古宅戀歌)–한옥 이야기’ 개인전을 열었다. 임서령 동창은 한옥에서 자란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임서령 동창

최유미(생미 85) 동창

2020년 12월 4일(금)부터 9일(수) 까지 이화여자대학교 Estilo Town 지역연계수업의 ‘이 공간, 이대로’의 전시 기획을 맡았다. ‘이 공간’은 이화여대 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이다. ‘이대로’는 이화여대 앞 골목 상권을 오랜 역사와 추억이 살아 숨 쉬는 장소로 정의하고, 미니맵 제작을 비롯해 다양한 코스와 상점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골목상권 안내 서비스이다.



최유미 동창

남여주(서양 86) 동창

2020년 8월 28일(금)부터 9월 9일(수)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혜화아트센터에서 초대전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남여주 동창

남연숙(도예 86) 동창

2020년 8월, 광의 테데도에 위치한 양로원(Dementia Adult Day Care Center)의 어르신들 작품들과 함께 아가나 쇼핑 센터에서 Art Strengthens Communication 을 주제로 ‘Moving Colors, Series 6’ 전시회를 가졌다. 또한 그룹 ‘OBRA’의



남연숙 동창

10주년 행사로 아가나 쇼핑 센터 Expo Hall에 벽화를 장식하고 기념 행사를 가졌다.

박영주(생명 86) 동창

박영주 동창이 헬릭스미스 임상 개발본부를 총괄하는 한국 책임자가 되었다. 임상 전문가인 박영주 동창은 25년간 글로벌 및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암, 당뇨병, 심혈관질환, 면역질환은 물론 희귀질환 분야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모두 경험했다.



박영주 동창

김미경(도예 87)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미경 동창이 2020년 10월 14일(수)부터 26일(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리홀갤러리에서 기획초대전 ‘一器;日記;一期; Thinking Hand’를 가졌다. 또한 11월 17일(화)부터 29일(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갤러리 4walls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그룹전 ‘제: 각기(第:覺器)–각자 다른 생각의 도자기’를 열었다.



김미경 동창

오민선(동양 87) 동창

동양화가 오민선 동창이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회장 장석용)가 주최하는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에서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은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독특한 예술로 커다란 족적을 남길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은 2020년 11월 20일(금) 서울 PJ Hotel에서 열렸다.



오민선 동창

김수지(동양 89) 동창

2020년 9월 16일(수)부터 22일(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Galley M에서 ‘압축’이라 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 동창은 한지로 입체적인 추상화 같은 형상을 만들어 세련됨이 돋보이는 작업을 선보였다.



김수지 동창

박혜영(의학 89) 동창

박혜영 동창이 이사장으로 있는 상원의료재단 부평힘찬병원이 2020년 10월 14일(수)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선포식 및 심포지엄’에서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의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시상된다.



박혜영 동창

이상미(서양 89) 동창

2020년 11월 26일(목)부터 12월 5일(토)까지 갤러리 누하에서 초대전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상미 동창

이인경(동양 89) 동창

이인경 동창이 2020년 11월 18일(수)부터 25일(수)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는 팔레드 서울 갤러리에서 개인전 ‘카이로스(Kairos)’를 개최했다. 이인경 동창은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자신의 그림에는 우



이인경 동창

주에 대한 사랑, 영원에 대한 사랑, 일상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한다.

김글로리아(김영미·컴공 90) 동창

선교사 김글로리아 동창이 제20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2020년 10월 12일(월) 서울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열렸다. 김글로리아 동창은 2001년부터 동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지 언어로 만든 교재를 활용해 문맹자 교육과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영미 동창

박효정(조소 90) 동창

2020년 9월 3일(목)부터 29일(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조은숙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박효정 동창

김지혜(도예 91) 동창

모교 도자예술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지혜 동창이 2020년 9월 2일(수)부터 20일(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린에서 개인전 ‘시간과 시간이 마주치는 곳에서’를 열었다.



김지혜 동창

김현애(물리 91) 동창

김현애 동창이 2020년 11월 25일(수)부터 12월 2일(수)까지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57th Gallery에서 개인전 ‘Being or Not Being’을 가졌다. 김현애 동창은 현재 앤드류 소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목우회 입상 및 다수의 미술대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다.



김현애 동창

윤수미(무용 91) 동창

동덕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윤수미 동창이 2020년 10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2020 ‘LA 댄스페스티벌(LADF)’ 메인 스테이지 초청 공연으로 본인의 안무작 <나비잠Ⅱ>을 발표했다.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송출되었다. 올해 8년째를 맞은 ‘LA 댄스페스티벌’은 럭맨 미술센터(Luckman Fine Arts Complex)와 협력하여 세계적 무용가들의 공연과 안무 워크숍을 선보이는 축제이며, 올해는 10월 2일(금)부터 25일(일)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개방했다.



윤수미 동창

심기남(의학 92) 동창

모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심기남 동창이 2020년 11월 19일(목)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0 국제소화기학술대회(KDDW) 추계학술대회에서 ‘위상피하종양에 대한 내시경초음파와 복부CT의 진단능력 비교연구’를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심기남 동창은 이번 수상을 통해 받은 상금 전액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심기남 동창

정혜경(의학 92) 동창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혜경 동창이 2020년 10월 6일(화)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대한의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동창은 ‘전문의 시험 형성평가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정부 용역 과제에 참여해, 국외 전문의



정혜경 동창

수련 및 자격 인정 현황 연구를 통해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이바지했다. 또한 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 학회 감사, 대한 소화기기능성질환 운동 학회 진료지침 위원장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서영(동양 93) 동창

김서영 동창이 2020년 11월 11일(수)부터 17일(화)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H에서 ‘책의 풍경, 오늘 그린 옛 그림’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서영 동창은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라는 말을 늘 염두하여 작업에 임했다고 한다.



김서영 동창

박주연(식영 93) 동창

박주연 동창이 2020년 11월 12일(목) 소비자의 이름이 새겨진 개인 맞춤형 영양제, ‘뉴트리미 마이팩’을 론칭했다. 박주연 동창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비타믹스(주)를 설립하여 개인의 식생활, 건강 행태에 맞는 영양제를 상담을 통해 추천, 조합, 제조하고 있으며, 한국 성인에 맞춘 1일 1포 종합 영양제 ‘에센셜팩’을 지난 6월 출시한 바 있다.



박주연 동창

서은애(동양 93) 동창

모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서은애 동창이 2020년 10월 15일(목)부터 27일(화)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아트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 ‘널카롭고도 무거운’을 개최했다.



서은애 동창

정지향(의학 94) 동창

이대서울병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정지향 동창이 2020년 9월 21일(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정지향 동창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 강서구 치매 안심센터장을 맡아 사회적 차원에서의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지향 동창

하유정(경제 96) 동창

하유정 동창이 2020년 11월 12일(목) 관세청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하 동창은 주홍콩총영사관 영사,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연경(사회 97) 동창

이연경 동창이 IT 기반의 종합 물류 브랜드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최고마케팅책임자(CMO)에 신규 선임되었다. 이연경 동창은 2002년 아우디코리아 창립멤버로 입사해 최연소 임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이후 해외 유명 베이커리 '타르틴'을 국내에 들여와 안착시키는 등 F&B는 물론 패션,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 왔다.



이연경 동창

윤진숙(동양 00) 동창

2020년 10월 23일(금)부터 11월 8일(일)까지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개인전 '꽃피우다'를 개최했다. 윤진숙 동창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안에서 삶의 방편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꽃이 된 모습을 상상해 작품으로 표현했다.



윤진숙 동창

최윤희(의학 00) 동창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겸 권역응급의료 센터장 최윤희 동창이 2020년 11월 9일(월)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을 수상했다. 최윤희 동창은 이대목동병원 권역



최윤희 동창

응급의료센터 및 재난 거점 병원을 운영하며 24시간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응급실과 병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고 119 구급대원의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조남주(사회 01)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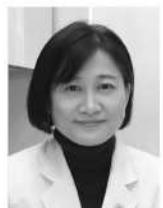
작가 조남주 동창의 소설『82년생 김지영』의 영어판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THE 100 MUST-READ BOOKS OF 2020)'에 선정됐다. 타임은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이 짧은 소설은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암묵적으로 강요받은 역할을 돌아보게 하고, 분노한 여성혐오주의자들이 촉발한 죽음의 위협을 상기시키며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선정평을 밝혔다.



조남주 동창

이정화(의학 03) 동창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화 동창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정지 중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로, 최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는 세계 최초이다.



이정화 동창

한지혜(생미 03) 동창

한지혜 동창이 전시 큐레이팅을 맡은 ‘우먼 인 디자인(Women in Design)’이 2020년 12월 23일(수)부터 2021년 3월 21일(일)까지 DDP 디자인뮤지엄에서 전시 중이다. DDP 디자인뮤지엄 첫 특별 기획전인 ‘우먼 인 디자인’ 전은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열린 1851년부터 코로나19라는 돌발적 사태가 지구촌을 휩쓸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상의 풍경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놓아 왔는지를 심도 있게 조명하는 대형 온라인 기획전이다.

서혜진(법학 05) 동창

서혜진 동창이 2020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다. 서 동창은 2011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여성 폭력에 대한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2014년 성폭력 피해자 우수 국선변호사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김지예(법학 07) 동창

김지예 동창이 2020년 11월 29일(일) 경기도 공정국장에 임명되었다. 김지예 동창은 사법 연수원 42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 기풍, 법무법인 태율, 로데 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하였으며, 2020년 5월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주류 대출, 중고차 허위매물, 복합쇼핑몰 갑질 등 각종 현안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안지아(생미 12) 동창

안지아 동창이 서울 송파구 송리단길 쓰레기 문제해결 송끄미 출동 리빙랩에 참가하였다. 활동 기간은 2020년 9월 8일(화)부터



김지예 동창



안지아 동창

11월 20일(금)까지였으며, 전시는 11월 25일(수)에 이루어졌다. ‘송끄미’란 송파와 깔끔이의 합성어로 송파구 지역의 활성화와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송파구 청년들이 기획한 프로젝트이다.

박선화(의학 14)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전임의 박선화 동창이 ‘박테리아 위험요소 모델을 이용한 조산의 예측’이라는 연구로, 제10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임신부의 생체시료를 이용한 조산의 위험도를 예측한 연구 중 인공지능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세계 처음이다.



박선화 동창

한지희(동양 15) 동창

한지희 동창이 ‘보물섬-이상향(理想鄉)’이라는 타이틀로 2020년 9월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갤러리 너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한지희 동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표현하기 위해 흙의 형상에서 산수를 연상한다고 한다. 다양한 흙의 현상이 각각 하나의 별이라 생각하며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한지희 동창

이은재(사학 16) 동창

이은재 동창이 시사 주간지 《시사저널》이 선정한 ‘2020 차세대리더 100’에 선정되었다. ‘재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은재 동창은 SBS의 온라인 콘텐츠인 〈문명특급〉 채널의 PD이자 MC다. 방송 진행 능력과 기획력을 인정받으면서 ‘2020년대 MC계의 신예’, ‘유튜브계의 유재석’이라고 불리고 있다.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19.12.30~2020.12.28

| | | | | |
|--------------------|-------------------|-------------------|-------------------|--------------------------|
| 인문과학대학 | 자연과학대학 | 종교음악과 | 초등교육과 | 김성희(87) 1,000,000 |
| 국어국문학과 | 수학과 | 정혜경(86) 1,000,000 | 김경희(90) 3,000,000 | 박미해(90) 3,000,000 |
| 안성희(88) 1,000,000 | 이래영(90) 3,000,000 | 오지영(88) 1,000,000 | 교육공학과 | |
| 황세레나(90) 3,000,000 | 김경자(68) 1,000,000 | 김선정(90) 3,000,000 | 권미경(87) 1,000,000 | |
| 중어중문학과 | 물리학과 | 한국음악과 | 이돈아(91) 3,000,000 | 간호대학 |
| 이주연(88) 1,000,000 | 김경자(68) 1,000,000 | 양재희(80) 1,000,000 | 특수교육과 | |
| 송진영(90) 3,000,000 | 강운자(74) 1,000,000 | 최혜경(90) 3,000,000 | 최경식(75) 1,000,000 | |
| 영어영문학과 | 박승옥(74) 1,000,000 | 조형예술대학 | 김현민(89) 1,000,000 | |
| 성혜숙(70) 1,000,000 | 정숙희(77) 1,000,000 | 동양화과 | 이소영(90) 3,000,000 | |
| 이경숙(70) 1,000,000 | 이미경(86) 1,000,000 | 문정이(90) 3,000,000 | 영어교육과 | |
| 윤유정(76) 1,000,000 | 이희숙(86) 1,000,000 | 서양화과 | 김선경(90) 3,000,000 | |
| 이정숙(77) 1,000,000 | 김태희(87) 1,000,000 | 조강신(90) 3,000,000 | 과학교육과 | |
| 방혜성(82) 1,000,000 | 최은영(87) 1,000,000 | 조소과 | 정재용(74) 1,000,000 | |
| 박경희(90) 3,000,000 | 배주연(88) 1,000,000 | 박효정(90) 3,000,000 | 이진수(90) 3,000,000 | |
| 불어불문학과 | 신소영(88) 1,000,000 | 섬유예술과 | 수학교육과 | |
| 배윤경(87) 1,000,000 | 이정립(88) 1,000,000 | 박희전(90) 1,000,000 | 신경희(77) 1,000,000 | |
| 독어독문학과 | 한미경(88) 1,000,000 | 생활미술과 | 홍정희(82) 2,000,000 | |
| 조행자(72) 1,000,000 | 탁정미(90) 3,000,000 | 이봉훈(81) 1,000,000 | 융합보건학과 | |
| 이정화(74) 1,000,000 | 화학과 | 이자민(90) 3,000,000 | 김영복(90) 3,000,000 | |
| 유동신(74) 2,000,000 | 최경희(80) 1,000,000 | 장식미술과 | 생활환경대학 | |
| 박지나(90) 3,000,000 | 윤선영(90) 3,000,000 | 신영선(88) 1,000,000 | 가정관리학과 | |
| 기독교학과 | 생명과학과 | 심은주(90) 3,000,000 | 정신호(90) 3,000,000 | |
| 박혜경(90) 3,000,000 | 김성옥(72) 1,000,000 | 도예과 | 의류직물학과 | |
| 사학과 | 조보연(86) 1,000,000 | 노태린(90) 3,000,000 | 김우겸(70) 1,000,000 | |
| 유영희(74) 1,000,000 | 공과대학 | 체육대학 | 홍나영(81) 1,000,000 | |
| 조주은(90) 3,000,000 | 컴퓨터공학과 | 체육과 | 식품영양학과 | |
| 사회과학대학 | 김인정(87) 1,000,000 | 이영란(76) 1,000,000 | 최수주(75) 1,000,000 | |
| 정치외교학과 | 고소희(90) 3,000,000 | 무용학과 | 정조인(83) 1,000,000 | |
| 금지현(87) 1,000,000 | 이영옥(92) 1,000,000 | 음악대학 | 김정선(90) 3,000,000 | |
| 김혜양(91) 3,000,000 | 문화대학 | 피아노과 | 대학원 | |
| 행정학과 | 이화정(87) 1,000,000 | 전유오(84) 1,000,000 | 이향숙(88) 1,000,000 | |
| 허경희(90) 3,000,000 | 고수희(90) 3,000,000 | 김민정(90) 3,000,000 | 박보경(13) 2,000,000 | |
| 문현정보학과 | 이영희(88) 1,000,000 | 사범대학 | 교육대학원 | |
| 유지연(90) 3,000,000 | 류예행(88) 1,000,000 | 교육학과 | 양수화(74) 1,000,000 | |
| 사회학과 | 이지연(90) 3,000,000 | 윤순희(65) 1,000,000 | 정책대학원 | |
| 최영희(73) 1,000,000 | 성악과 | 김영주(71) 1,000,000 | 전혜성(08) 1,000,000 | |
| 박순원(77) 1,000,000 | 석정자(67) 1,000,000 | 양선희(87) 1,000,000 | 최영은(08) 1,000,000 | |
| 채윤정(90) 3,000,000 | 신난식(73) 1,000,000 | 김경희(90) 3,000,000 | 김순옥(19) 1,000,000 | |
| 사회복지학과 | 이성주(90) 3,000,000 | 유아교육과 | | |
| 이화수(77) 1,000,000 | 이수연(92) 1,000,000 | 강숙현(86) 1,000,000 | | |
| 김주현(90) 3,000,000 | 작곡과 | 유청옥(88) 1,000,000 | | |
| 심리학과 | 하지양(90) 3,000,000 | 황혜현(90) 3,000,000 | | |
| 장은진(90) 3,000,000 | | | | |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16.1~2020.12(과·졸업연도 순)

| | | | | |
|-----------------|-----------------|-------------------|-----------------|-----------------|
| 인문과학대학 | 박영숙(67) 300,000 | 박수현(08) 500,000 | 한수미(67) 300,000 | 양연수(70) 300,000 |
| 국어국문학과 | 오원자(68) 300,000 | 영어영문학과 | 송혜영(69) 300,000 | 이경숙(70) 300,000 |
| 김성자(61) 300,000 | 송호연(69) 300,000 | 김세영(50) 1,000,000 | 정성희(69) 300,000 | 최선열(70) 300,000 |
| 박미해(64) 300,000 | 최경희(77) 300,000 | 정소영(62) 300,000 | 박지화(70) 300,000 | 이승신(72) 300,000 |
| 유정자(65) 300,000 | 중어중문학과 | 박명자(67) 300,000 | 성혜옥(70) 300,000 | 김희자(76) 300,000 |

| | | | | |
|---------------------|-----------------|-----------------|-----------------|-----------------|
| 김남민(78) 300,000 | 송혜숙(73) 300,000 | 조형예술대학 | 서정희(70) 300,000 | 구신자(64) 300,000 |
| 이명실(78) 300,000 | 김정애(76) 300,000 | 동양화과 | 노현숙(71) 300,000 | 김화자(65) 300,000 |
| 이해남(79) 300,000 | 강순원(80) 300,000 | 강미연(74) 300,000 | 이인숙(72) 300,000 | 이정자(66) 300,000 |
| 김종우(80) 300,000 | 한성엽(82) 300,000 | 서양화과 | 송선희(78) 300,000 | 김덕길(69) 300,000 |
| 김동숙(81) 300,000 | 경제학과 | 이정수(03) 500,000 | 손혜경(80) 500,000 | 정인숙(69) 300,000 |
| 명선영(92) 500,000 | 박민정(02) 500,000 | 섬유예술과 | 부은령(81) 300,000 | 고명순(72) 300,000 |
| 김동연(93) 500,000 | | 이현주(83) 300,000 | 김방희(85) 500,000 | 박정아(72) 300,000 |
| 박지희(07) 500,000 | | 김로아(87) 500,000 | 과학교육과 | 임형순(73) 300,000 |
| 송세일(09) 500,000 | | 김성희(89) 300,000 | 송옥자(66) 300,000 | 정용희(75) 300,000 |
| 김민경(16) 500,000 | | 생활미술과 | 손지현(89) 500,000 | 민명수(79) 500,000 |
| 불어불문학과 | | 김명임(63) 500,000 | 수학교육과 | 이선희(82) 300,000 |
| 허영자(62) 500,000 | | 장유근(67) 300,000 | 신경희(77) 300,000 | 안소영(83) 500,000 |
| 조귀연(65) 300,000 | | 신수연(69) 300,000 | 융합보건학과 | 유별내(02) 500,000 |
| 임채문(67) 300,000 | | 장식미술과 | 유형심(90) 500,000 | 제약학과 |
| 이원옥(68) 300,000 | | 김승연(88) 500,000 | | 최지영(08) 500,000 |
| 임순영(70) 300,000 | | 도예과 | | |
| 김영혜(77) 300,000 | | 최재원(84) 300,000 | | |
| 배혜화(77) 300,000 | | | | |
| 독어독문학과 | | | | |
| 민용자(67) 300,000 | | 체육대학 | | 생활환경대학 |
| 이숙경(68) 300,000 | | 체육과 | | 가정학과 |
| 유동신(74) 300,000 | | 정준희(71) 300,000 | | 경순옥(59) 300,000 |
| 임병희(74) 300,000 | | 김정원(76) 300,000 | | 이갑희(66) 500,000 |
| 이은주(82) 300,000 | | 생명과학과 | | 가정관리학과 |
| 최상민(다경)(03) 500,000 | | 류 우(60) 300,000 | | 이숙현(67) 300,000 |
| 기독교학과 | | 김문자(65) 300,000 | | 최순자(68) 300,000 |
| 김미순(75) 300,000 | | 이혜숙(67) 300,000 | | 김진원(75) 300,000 |
| 사학과 | | 조애현(74) 300,000 | | 지영서(80) 300,000 |
| 임계순(67) 300,000 | | | | 한정희 300,000 |
| 오영옥(68) 300,000 | | 공과대학 | | 의류직물학과 |
| 임지향(68) 300,000 | | 컴퓨터공학과 | | 이명희(70) 300,000 |
| 전진순(68) 300,000 | | 조호경(87) 500,000 | | 우미형(77) 300,000 |
| 박기옥 300,000 | | 환경공학과 | | 식품영양학과 |
| 불 명 300,000 | | 환경공학과 | | 박진자(71) 300,000 |
| 사회과학대학 | | 전유진(16) 500,000 | | 강종은(74) 300,000 |
| 정치외교학과 | | 건축학부 | | 김광옥(75) 300,000 |
| 구혜정(71) 300,000 | | 심미혜(09) 500,000 | | 황은주(75) 349,534 |
| 이문숙(79) 300,000 | | 음악대학 | | 최진자(80) 300,000 |
| 김미령(80) 300,000 | | 기악과 | | 조미숙(83) 300,000 |
| 문화정보학과 | | 윤언경(49) 300,000 | | |
| 홍승진(65) 300,000 | | 최승현(63) 300,000 | | |
| 윤소영(73) 300,000 | | 정청자(64) 300,000 | | |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 | 조정진(67) 300,000 | | |
| 장명수(64) 300,000 | | 홍영주(68) 300,000 | | |
| 사회학과 | | 나효선(70) 300,000 | | |
| 민순기(70) 300,000 | | 피아노과 | | |
| 박순원(77) 300,000 | | 피아노과 | | |
| 문명재(77) 300,000 | | 윤연경(49) 300,000 | | |
| 김우진(08) 500,000 | | 최승현(63) 300,000 | | |
| 사회복지학과 | | 정청자(64) 300,000 | | |
| 오명자(65) 300,000 | | 조정진(67) 300,000 | | |
| 한인영(72) 300,000 | | 홍영주(68) 300,000 | | |
| 박영애(79) 300,000 | | 나효선(70) 300,000 | | |
| 정우선(02) 500,000 | | 성악과 | | |
| 심리학과 | | 기악과 | | |
| 이은실(60) 1,300,000 | | 윤숙영(87) 500,000 | | |
| 신현숙(71) 300,000 | | 채성내(92) 500,000 | | |
| | | 특수교육과 | | |
| | | 송혜숙(73) 300,000 | | |
| | | 김경자(68) 362,258 | | |
| | | 조진영(77) 300,000 | | |
| | | 교육공학과 | | |
| | | 김준희(67) 300,000 | | |
| | | 김혜련(73) 300,000 | | |
| | | 노정숙(74) 300,000 | | |
| | | 간호대학 | | |
| | | 특수교육과 | | |
| | | 김영숙(69) 300,000 | | |
| | | 안경숙(78) 300,000 | | |
| | | 외국어교육과 | | |
| | | 한은주(79) 300,000 | | |
| | | 채명숙(92) 500,000 | | |
| | | 영어교육과 | | |
| | | 영어교육과 | | |
| | | 제기원(69) 300,000 | | |
| | | 김영숙(69) 300,000 | | |
| | | 안경숙(78) 300,000 | | |
| | | 약학대학 | | |
| | | 외국어교육과 | | |
| | | 이혜완(69) 300,000 | | |
| | | 사회과교육과 | | |
| | | 오지영(88) 500,000 | | |
| | | 사회과교육과 | | |
| | | 이선희(61) 300,000 | | |
| | | 민태희(70) 300,000 | | |
| | | 신학대학원 | | |
| | | 신학대학원 | | |
| | | 천미영(14) 500,000 | | |
| | | 학과 연도 미상 | | |
| | | 박인숙 300,000 | | |
| | | 김보혜 300,000 | | |
| | | 윤혜원 300,000 | | |
| | | 불 명 500,000 | | |
| | | 불 명 300,000 | | |

이번 호에 실릴 예정이었던 〈동창이 펴낸 새 책〉은 지면 사정상 싣지 못하고 2021년 봄호(162호)에싣습니다.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20.1~2020.12(과, 졸업연도 순)

| | | | | | | |
|---------|-------------|-------------|---------|---------|----------|---------|
| 인문과학대학 | 이종희(70) | 김인숙(61) | 최재명(66) | 정은자(61) | 이인희(80) | 이정옥(63) |
| 국어국문학과 | 김혜정(72) | 정민자(61) | 김일숙(67) | 황유경(85) | 이현주(83) | 불명(63) |
| 이영옥(58) | 황점순(73) | 김학자(62) | 최수자(67) | 조가현(09) | 봉지희(85) | 구순희(65) |
| 배동자(58) | 이명숙(74) | 남상훈(62) | 문선화(68) | 안우휘(19) | 생활미술과 | 오금희(65) |
| 임인진(58) | 불명(75) | 김재향(67) | 양정애(70) | 김정아(78) | 문화자(67) | 윤순희(65) |
| 김중자(60) | 김혜숙(76) | 서정임(68) | 김정애(78) | 심세화(96) | 공과대학 | 이민정(67) |
| 변도화(60) | 윤유정(76) | 오옥환(68) | 박순자(66) | 컴퓨터공학과 | 조창연(67) | 이행자(65) |
| 양중자(60) | 한수미(76) | 한상혜(73) | 고소희(90) | 김인정(87) | 김미자(70) | 원지영(67) |
| 육완정(60) | 김미량(77) | 정현주(76) | 계명의(67) | 이미숙(72) | 박경희(68) | 박경희(68) |
| 윤숙자(63) | 이정숙(77) | 최유리(84) | 조상옥(76) | 이영옥(92) | 이주협(80) | 박영자(68) |
| 안정환(65) | 불명(79) | 이영희(88) | 장서희(01) | 건축학과 | 박인영(99) | 박정수(68) |
| 윤수영(65) | 이승희(80) | 사회과학대학 | 문유미(18) | 장식미술과 | 권지원(75) | 이재옥(68) |
| 신효재(66) | 임순희(82) | 정치외교학과 | 이화연(13) | 박연영(88) | 고정란(82) | 장예순(68) |
| 정준선(66) | 박경애(83) | 경제학과 | 이화연(13) | 음악대학 | 신영선(88) | 김임순(70) |
| 최정숙(66) | 한상연(84) | 김정애(59) | 이호진(03) | 기악과 | 도예과 | 이인숙(70) |
| 오원자(68) | 김주희(92) | 최금자(66) | 윤미재(65) | 황경현(63) | 남연숙(86) | 박국자(72) |
| 서경자(69) | 박은주(94) | 우행자(69) | 김기순(66) | 김기순(66) | 노경희(77) | 노경희(77) |
| 신연임(69) | 오승우(00) | 이영옥(71) | 윤연상(62) | 디자인학부 | 박영숙(81) | 박영숙(81) |
| 유원화(69) | 고혜선 | 신경희(71) | 신정수(65) | 기악부 | 서순(02) | 안경인(89) |
| 정운현(69) | 불어불문학과 | 서미영(72) | 이희자(67) | 원(08) | 윤다정(08) | 윤다정(08) |
| 장종옥(70) | 권남규(64) | 김희정(88) | 김경애(72) | 피아노과 | 유아교육과 | 이은화(59) |
| 조운희(73) | 윤용범(64) | 행정학과 | 이숙자(73) | 권혜령(76) | 체육과 | 최영란(61) |
| 한순미(75) | 원양숙(64) | 유샛별(07) | 한재욱(79) | 김희심(76) | 김정자(56) | 유근희(61) |
| 전신애(75) | 조행자(64) | 김선우(16) | 류경라(81) | 김문정(87) | 이요식(57) | 정주자(62) |
| 백영자(76) | 이초현(66) | 문현정보학과 | 김경령(84) | 원현정(00) | 이영옥(62) | 김혜자(66) |
| 이정아(84) | 정계숙(66) | 유애저(65) | 김민경(85) | 양경희 | 김영주(71) | 김영주(71) |
| 안유진(15) | 이경해(67) | 이수자(65) | 박나영(08) | 관현악과 | 최춘자(66) | 조한수(71) |
| 이수자(16) | 이한순(67) | 최선희(65) | 이순자(59) | 이혜원(81) | 전성자(67) | 김윤미(86) |
| 중어중문학과 | 정명자(67) | 문영주(67) | 박나영(08) | 김자영(03) | 이정자(68) | 서유현(96) |
| 홍예진(17) | 장혜경(73) | 윤화진(81) | 모혜정(62) | 김은희(72) | 김은희 | 김은희 |
| 강운화(20) | 정광자(73) |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 정경숙(63) | 성악과 | 이미나(81) | 초등교육과 |
| 영어영문학과 | 김보경(81) | 최광순(64) | 김경자(68) | 석정자(67) | 무용학과 | 고정자(64) |
| 류수인(50) | 독어독문학과 | 이정민(67) | 이미경(86) | 왕야자(67) | 김광자(65) | 김광자(65) |
| 김순자(55) | 홍명자(66) | 한명미(67) | 최은영(87) | 천인숙(82) | 조을순(75) | 조을순(75) |
| 김승숙(55) | 오영란(67) | 성인숙(70) | 최혜경(87) | 석혜원(94) | 교육공학과 | 한명숙(79) |
| 백형진(55) | 최옥주(67) | 김인자(73) | 배주연(88) | 직곡과 | 우혜영(95) | 반주원(76) |
| 천영애(55) | 박효순(69) | 홍인화(80) | 한미경(88) | 임진(72) | 사회체육과 | 하경옥(77) |
| 김형식(56) | 이금숙(69) | 이민경(81) | 박영경(01) | 김시애(75) | 김유련(97) | 박효숙(84) |
| 이인주(56) | 최영민(71) | 서수정(88) | 화학과 | 종교음악과 | 강현정(94) | 강현정(94) |
| 전은경(59) | 이정화(74) | 송지은(01) | 김정남(60) | 방명주(73) | 사법대학 | 조원희(97) |
| 박재옥(60) | 강신애(00) | 사회학과 | 김종은(60) | 한국음악과 | 교육학과 | 류다현(20) |
| 최화령(60) | 최상민(다경)(03) | 장의순(62) | 박영현(60) | 김보경(09) | 백인숙(50) | 특수교육과 |
| 김옥선(61) | 기독교학과 | 최용소(65) | 양영자(65) | 조형예술대학 | 호재숙(49임) | 최경식(75) |
| 이기영(62) | 김영희(63) | 정행자(66) | 양수경(67) | 동양화과 | 이정희(55) | 김현민(89) |
| 고영자(63) | 전민혜(64) | 이효원(69) | 위경숙(68) | 이채연(70) | 김옥성(56) | 영어교육과 |
| 문영혜(63) | 김영화(65) | 박춘호(70) | 이인희(70) | 박성희(86) | 김애자(56) | 김영숙(69) |
| 박봉숙(63) | 이정자(66) | 최진선(70) | 심송영(73) | 조병주(56) | 최종숙(72) | 최종숙(72) |
| 임윤성(63) | 이혜재(66) | 이현숙(74) | 안소영(73) | 이승은(89) | 이연숙(57) | 강월석(76) |
| 유영애(63) | 장수자(66) | 오숙영(77) | 배경화(74) | 서양화과 | 권유봉(58) | 박영란(80) |
| 김영자(64) | 유승희(82) | 김은미(81) | 박명옥(81) | 양경옥(63) | 김은산(59) | 윤혜화(80) |
| 노영자(64) | 정모견(08) | 이주희(87) | 생명과학과 | 최구자(65) | 김성숙(59) | 김정민(91) |
| 김춘미(65) | 철학과 | 최태순(62) | 이정숙(61) | 곽연(67) | 이양순(59) | 외국어교육과 |
| 정혜주(65) | 이정혜(81) | 조의숙(63) | 정영애(60) | 이준령(82) | 권혜숙(61) | (불어전공) |
| 엄은옥(67) | 사학과 | 이정숙(64) | 최영희(60) | 조소과 | 유수현(61) | 김선희(77) |
| 오경임(67) | 손경수(60) | 이정숙(64) | 강래화(61) | 신은숙(79) | 백영자(63) | 임화영(82) |
| 이유경(68) | 이은숙B(60) | 이정자(64) | 이종원(61) | 섬유예술과 | 백형자(63) | 임선희(85) |

| 채은미(85) 사회과교育과 | 국제사무학과 | 이은실(61) 임은식(81) | 김인숙(50) 정예경(61) | 기타 이름미상 (28명) | 멜버른 510,000원 | 일본 510,000원 |
|-------------------|--------|--------------------|--------------------|--------------------------|-----------------|----------------|
| 박정복(57) | | | 노재열(74) 차영화(63) | 노재열(74) | 파소춘(사학 65) | |
| 이선희(61) | 의과대학 | 구신자(64) | 서태선(75) | 국내 지회 2019년분 300,000원 | 정정자(커미부 65) | |
| 홍삼랑(61) | 의학과 | 김기방(64) | 장지원(09) | 대구 600,000원 | 최영숙(체육 69) | |
| 강봉기(63) | | 김송윤(64) | 의류직물학과 박윤정(55) | 대전 600,000원 | 공복자(장미 59일) | |
| 강혜온(63) | | 이종원(62) | 장경선(75) | 순천 630,000원 | 고정희(장미 74) | |
| 양인숙(66) | | 우복희(63) | 유혜자(77) | 강초래(가정 63) | 전숙자(사회과교육 65) | |
| 최영자(66) | | 이영우(64) | 이서윤(03) | 이수형(커미부 67) | 송미연(커미부 86) | |
| 성봉기(68) | | 이현숙(64) | 식품영양학과 홍경자(64) | 조정자(국문 63) | 황민경(영교 86) | |
| 송경자(68) | | 남소자(66) | 김명자(66) | 김광주(교육 37) | 박경란(무용 90) | |
| 윤여숙(69) | | 방희연(68) | 김화수(66) | 박윤정(55) | 김덕희(도예 92) | |
| 김숙자(70) | | 이규현(68) | 이강희(66) | 김경인(동양 74) | 백희준(수학 84) | |
| 이연희(75) | | 주문희(70) | 강원자(67) | 강원선(교육 74) | 나정윤(동양 92) | |
| 박금숙(83) | | 유경화(74) | 석귀덕(67) | 최정숙(영교 74) | 김명원(수학 92) | |
| 신정훈(16) | | 최금자(74) | 안규형(67) | 유종희(사학 75) | 문정아(불어교육 92) | |
| 정은주 | | 배순희(75) | 오세종(68) | 고명선(영문 76) | 표연숙(동변역 07) | |
| 과학교육과 | | 이경자(75) | 전두선(68) | 박금희(물리 76) | 북텍사스(밸러스) | |
| 이순자(67) | | 박영숙(76) | 김일희(69) | 최영자(사회 77) | (500달러) | |
| 한옥희(67) | | 송선희(77) | 박성숙(69) | 김명석(작곡 79) | 김 얼(한음 02) | |
| 한태화(68) | | 이용주(77) | 오정순(69) | 나연희(경영 79) | 고나리(커미부 05) | |
| 주영미(72) | | 오해숙(78) | 하영숙(69) | 황경숙(체육 79) | 문춘자(정책대 09) | |
| 이기출(73) | | 피상순(84) | 장인순(68) | 조미숙(83) | 자카르타 | |
| 김인원(75) | | | 정순자(70) | 전강숙(85) | 236,000원 | |
| 이영희(75) | 간호대학 | | 정점선(70) | 이윤경(90) | 클리블랜드 | |
| 조운희(77) | 간호학과 | | 우진향(75) | 박혜리 | 토론토 | |
| 김영숙(83) | | 남상옥(82) | 김민영(79) | 대학원 | 김명순(간호 62) | |
| 수학교육과 | | 오나미혜(64) | 최순경(81) | 하영수(68) | 20년~24년까지 | |
| 문봉선(76) | | 이남희(70) | 김용재(82) | 유의순(76) | 오타와 | |
| 김정미(87) | | 김택숙(71) | 지선옥(83) | 김지원(08) | 300,000원 | |
| 융합보건학과 | | 최혜은(98) | 박병희(84) | 이수민(17) | | |
| 장점숙(69) | | 김경미(19) | 정병화(88) | 박혜리 | | |
| 한양희(71) | 약학대학 | | 권현진(05) | 교육대학원 | | |
| 이주순(73) | 약학과 | | 제약학과 | 양수화(74) | | |
| 이선숙(74) | | | 오용순(75) | 정책대학원 | | |
| 오명신(78) | | | 강옥수(76) | 이인숙(06) | | |
| 임찬희(78) | | | 이항구(50) | 학과·연도 미상 | | |
| 전혜선(82) | | | 김영미(79) | 김수희(58) | | |
| 법대·법전원 | 법학과 | | 박영호(80) | 김순옥 | | |
| 윤명열(60) | | | 전예실(51) | 김창신 | | |
| 이홍배(61) | | | 최귀래(51) | 김춘심 | | |
| 유희숙(65) | | | 오춘환(55) | 김혜경 | | |
| 홍경자(65) | | | 최재순(56) | 노경혜 | | |
| 양정자(66) | | | 김원숙(57) | 문경숙 | | |
| 안정희(67) | | | 김정순B(57) | 박복자 | | |
| 윤혜숙(70) | | | 정영주(57) | 박상영 | | |
| 최양숙(70) | | | 문경희(58) | 박영미 | | |
| 이승주(73) | | | 한영숙(58) | 이혜수(60) | | |
| 이 (73) | | | 박경애(59) | 박영희 | | |
| 조근배(77) | | | 신가균(59) | 박창순(62) | | |
| 윤설희(87) | | | 박영혜(63) | 박옥연 | | |
| 최정숙(90) | | | 윤혜숙(59) | 양정자 | | |
| 경영대학 | 경영학과 | | 이영애(63) | 유무웅 | | |
| 김영선(78) | | | 고순환(60) | 유자희 | | |
| 문수정(84) | | | 김용자(64) | 유재환 | | |
| 박숙영(00) | | | 예경애(64) | 이인숙 | | |
| 이수현(11) | | | 박정자(65) | 조규화(66) | | |
| | | | 이주화(60) | 조규화(66) | | |
| | | | 장현숙(60) | 박순자(67) | | |
| | | | 최혜경(60) | 최민자(67) | | |
| | | | 한영숙(60) | 김대순(68) | | |
| | | | 황명순(60) | 김성립(68) | | |
| | | | 김명숙(61) | 배계현(68) | | |
| | | | 김옥녀(61) | 임혜숙(68) | | |
| | | | 민영례(61) | 가정관리학과 | | |

VVIP 통합 프리미엄 매칭 최초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에스노블

VIP 당신의 사랑과 품격있는 결혼을 위한



두 대통령家의 성혼을 이루어 낸

22년 경험의 프리미엄 매칭노하우,
엄정한 심사와 신원인증을 거친 차별화된 회원 네트워크,
노블레스 결혼을 이끌어온 최고 성혼율

VIP성혼의 마지막 절차,
에스노블의 회원으로 특별한 1%의 만남을 확인하세요

생각

이 — 어 — 지 — 다

행동으로

생각만 한다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빛나는 생각도, 앞선 생각도
생각에서 멈춘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디지털이라는 변화, 언택트라는 큰 변화 앞에서
고객을 위해 은행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한은행이 했던 수많은 생각들.
자라서 꽃이 되도록, 열매가 되도록,
고객의 기쁨이 되도록,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고객 가까이.
당신의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신한은행**

밀하시기 전에 알자
마이케어 서비스

챙겨드리자
MY 신용관리

원하실 때 만나자
디지택트 브랜치

오시지 않아도 되게하자
STAB (찾아가는 서비스)

더쉽게 해드리자
SOL 청약컨설팅

아끼드ري자
월납관리 서비스

편하게 해드리자
전자문서지갑